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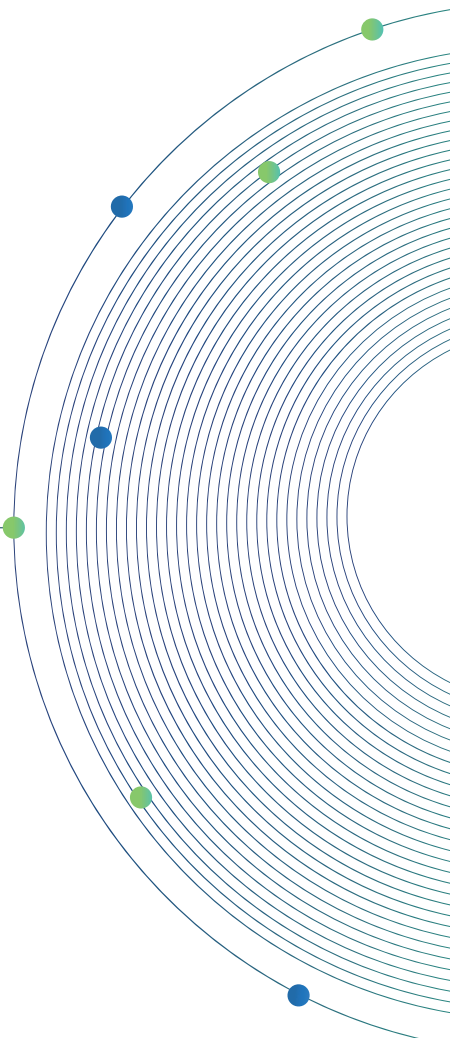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11-1421000-000017-01



국민과 함께한 중소기업부

출범 5주년 통계자료집

Since 2017



국민과 함께한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5주년 통계자료집

Since 2017

CONTENTS

01 코로나19 대응 회복·안정 도모	02
02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10
03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20
04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조성	32
05 중소기업 디지털화 및 지역 혁신	44
06 연대와 협력을 통한 상생경제 확산	52



01

코로나19 대응 회복·안정 도모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도 중소기업부는 소상공인과 벤처·중소기업이 올곧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차례의 재난지원금 지원과 손실 보상 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 및 만기 연장 등 긴급 금융을 통해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원활한 폐업과 재도전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매출 회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회복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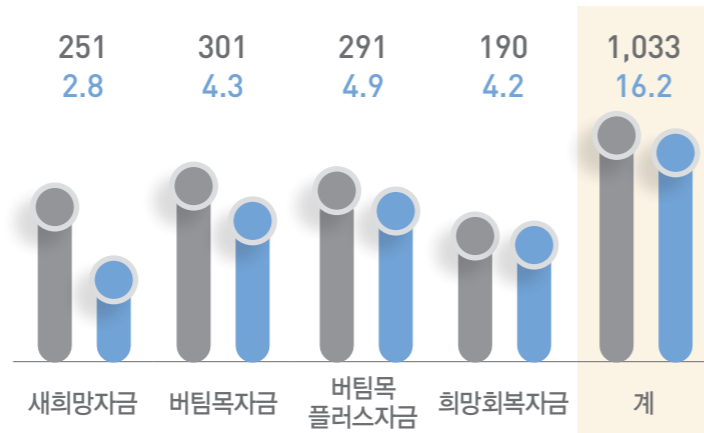
재난지원금 지급

16.2 조 원

소상공인 대상 4차례 재난지원금 지원
1,033만 명, 16.2조 원 지급

회차가 거듭될수록 재난지원금 지원책을 보완해 신청 및 지급 편의성을 높이고 지원기준을 완화했으며 지원금액을 확대했습니다.

● 대상 인원(단위: 만 명, 중복 포함)
● 지급 금액(단위: 조 원, 중복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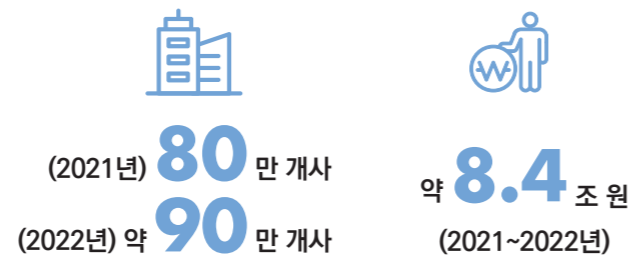


“세계 유례 없는” 손실보상금 지급

8.4 조 원

2021년 3분기 손실보상으로
66.2만 개사 1.95조 원 지급(~2022.2.21.)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해 세계 최초로 국가가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금전 보상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회안전망에 대한 소상공인의 신뢰도가 향상되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55 만 개사

2021.12.06. ~ 2022.01.16.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 개사를 대상으로
500만 원씩 손실보상금 선지급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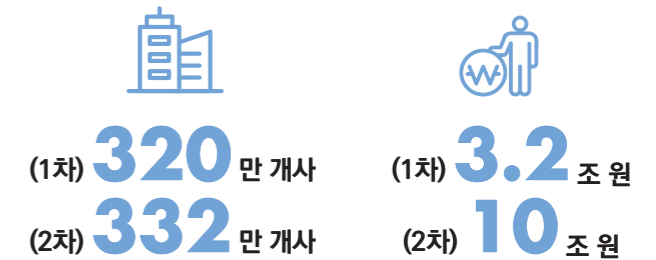


방역지원금 지급(1, 2차)

13.2 조 원

2022.2.21.까지 304.6만 개사에 대한
방역지원금 3.05조 원 지급 완료

임차료, 인건비 등 실질적인 운영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방역물품지원금 지급

0.1 조 원

약 114만 개사에 최대 10만 원 지원
(2022.1.17.~, 예산 0.1조 원)

방역패스 의무 적용을 받는 소기업·소상공인 약 114만 명에게 최대 10만 원씩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긴급금융 지원

코로나19 취약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출

2.6 조 원

2021년 12월 말 기준, 집합금지 임차료·고용연계·저신용·일상회복특별용자 등 총 19.5만 건, 2.6조 원 지급(2021.1.~12.)

코로나19로 금융절벽에 놓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강화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만기연장

529.4 억 원

5,456건, 529.4억 원(2021년 12월 말 기준) 금융권 자금 만기연장 조치 연장결정에 맞춰, 소진공 정책자금 6개월 만기연장 시행(2021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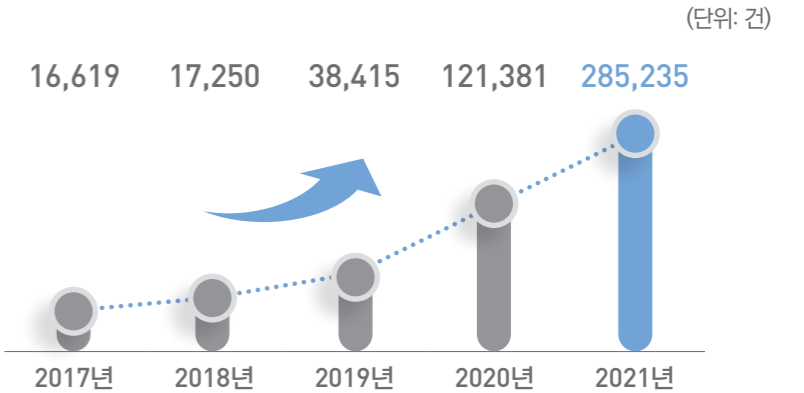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금상환 부담을 완화하고자 6개월 만기연장을 지원했습니다.



소상공인 재기 지원

소상공인 재기지원 지속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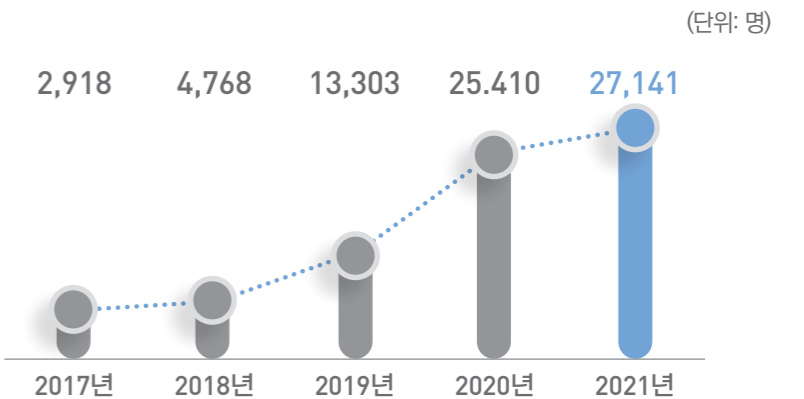
285,235 건



그간 폐업과정에 필요한 지원과 이후 재창업과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민간의 전문성과 수요를 바탕으로 개설·운영하여, 소상공인의 사업 전체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도별 폐업 지원 증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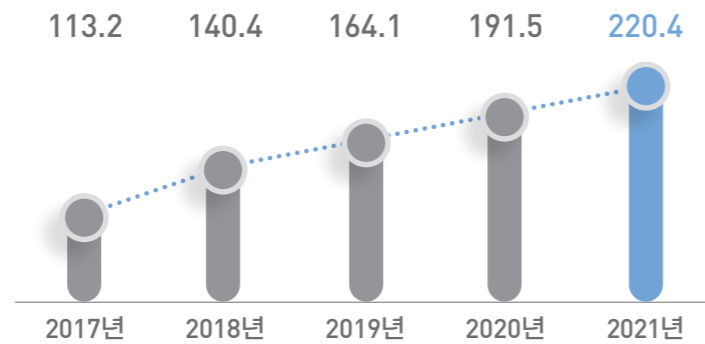
27,141 명



노란우산공제
누적 가입자 증가 추이

220.4 만 명

(단위: 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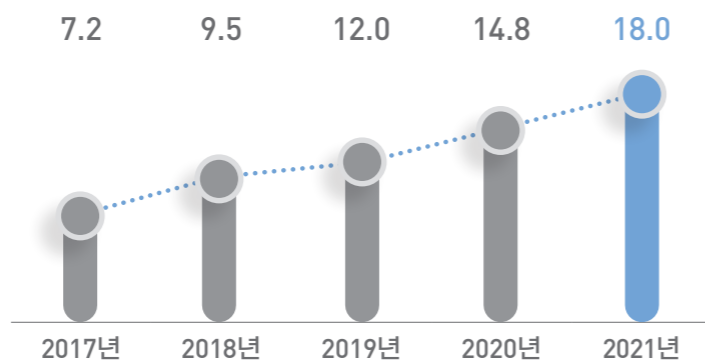


2021년 12월 말까지 폐업·사망 등 사유가 발생한 497천 명의 소기업·소상공인에게 4.0조 원의 공제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적극 지원하는 등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누적 공제부금 증가 추이

18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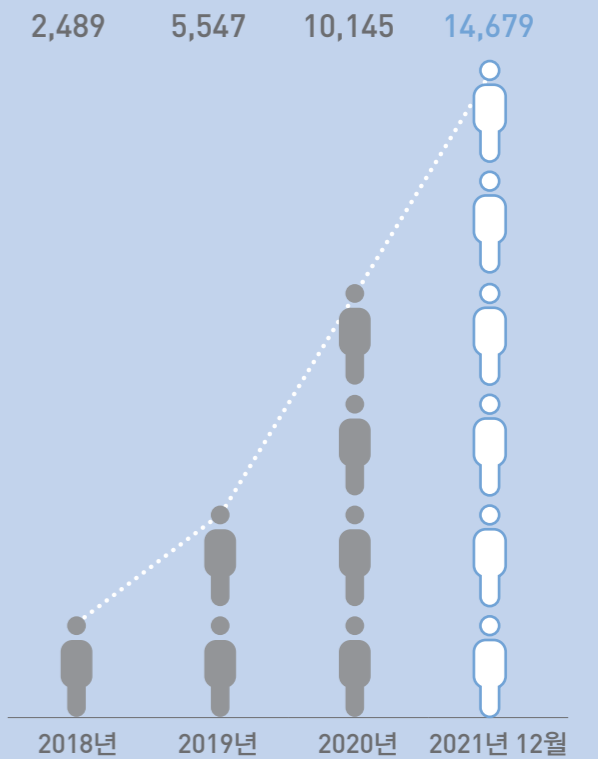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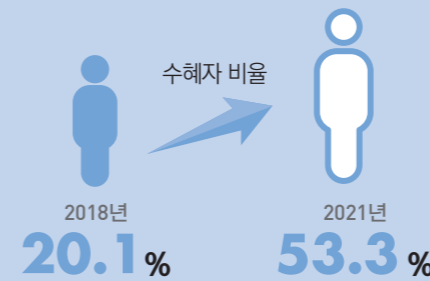
(단위: 조 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증가 추이

14,679 명(누계)

2018년 사업 도입 이후 예산이 12.5억 원에서 25.6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고용보험 가입자 중 수혜자 비율도 2018년 20.1%에서 2021년 53.3%로 높아졌습니다.



(단위: 명, 누계)

02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소상공인이 다시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상점·디지털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로의 전환과 제로페이를 통해 온·오프라인 접근성을 강화하고, 상권 르네상스 지원과 온누리 상품권, 동행세일 등 상권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통해 소상공인·전통시장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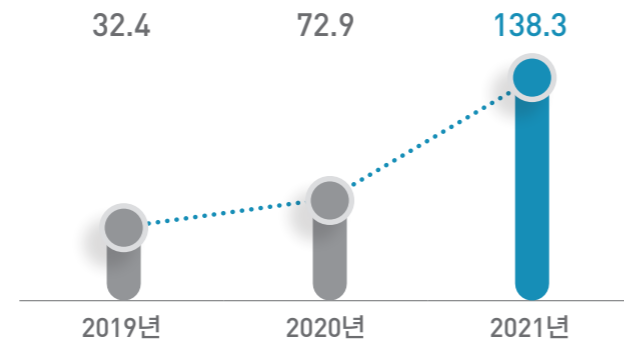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촉진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제로페이) 가맹점 증가 추이

138.3 만 개

서비스 개시 2년여 만에 138만 개 가맹점을 확보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위: 만 개, 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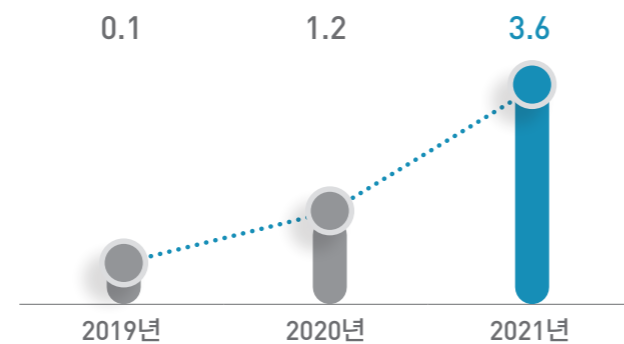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제로페이) 결제금액 규모 증가 추이

3.6 조 원

2021년까지 총 3조 6,229억 원 결제, 2019년 대비 47배 성장하여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결제수단으로 정착하였습니다.

(단위: 조 원, 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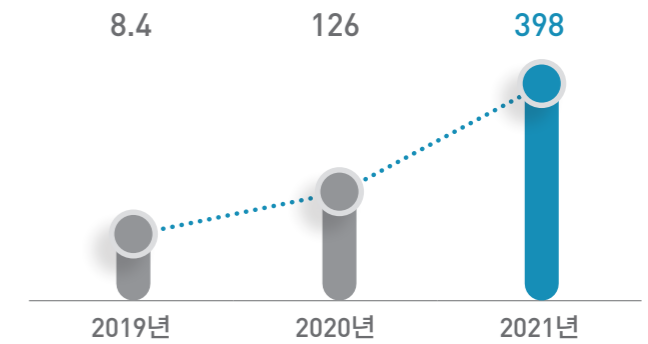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제로페이) 활용에 따른 수수료 절감액

398 억 원

제로페이는 신용카드보다 수수료가 약 1.1p% 낮아 2021년 기준 약 398억 원의 수수료를 절감하였습니다.

(단위: 억 원, 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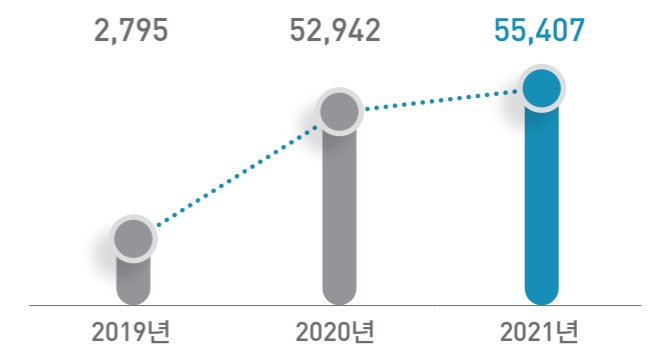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실적

55,407 개사

2025년까지 전체 소상공인의 10%인 32만 명의 온라인 시장진출을 목표로, 2019년부터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교육·컨설팅부터 온라인 채널 입점 등을 지원했습니다.

(단위: 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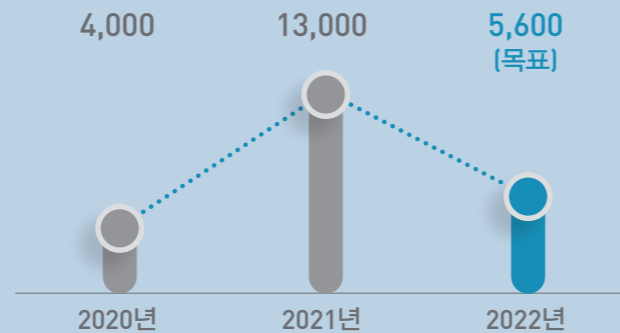


스마트상점 지원 실적 및 주요 성과

13,000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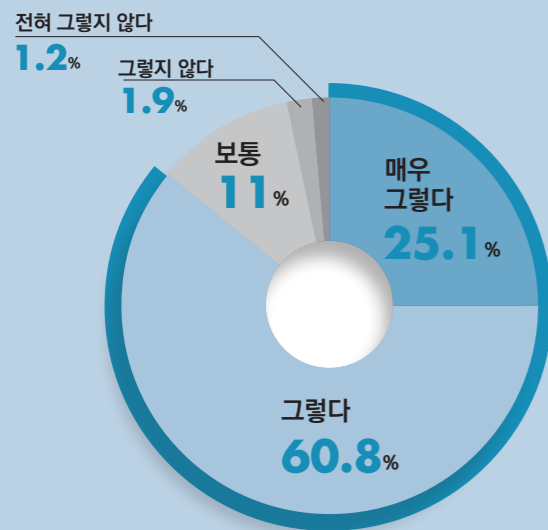
상점 수(단위: 개)



소상공인 점포에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여 서비스·경영 혁신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매출액 증가와 위기 극복에 기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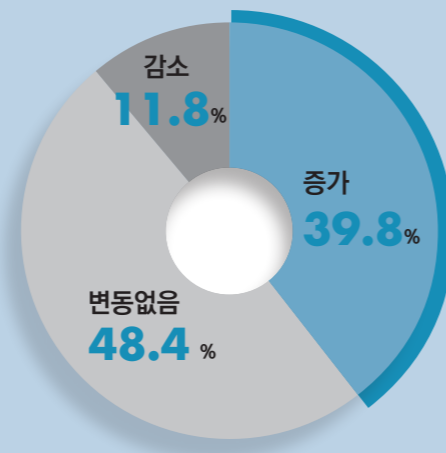
스마트상점 지원사업 만족도

85.9 % (2021.1월)



스마트상점 도입 전후 매출액 증가

39.8 % (202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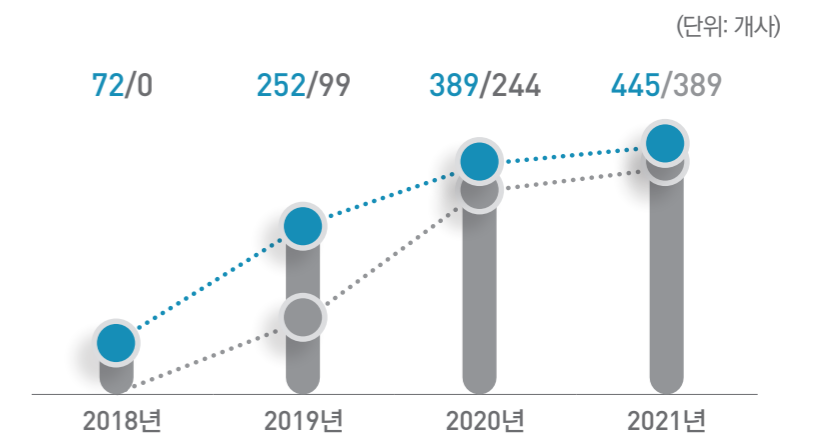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직접 지원사업 발굴·선정

445 개사 / **389** 개사

백년가게는 업력 30년 이상, 백년소공인은 업력 15년 이상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우수 소상공인 등을 발굴·선정하여 시설 개선, 판로 개척, 홍보 등을 지원했습니다.

● 백년가게 현황
● 백년소공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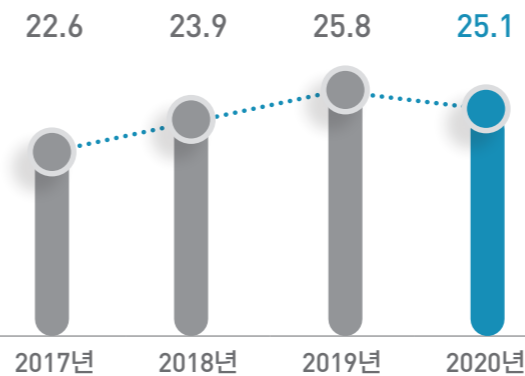


전통시장 매출 추이

25.1 조 원

지속적인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매출액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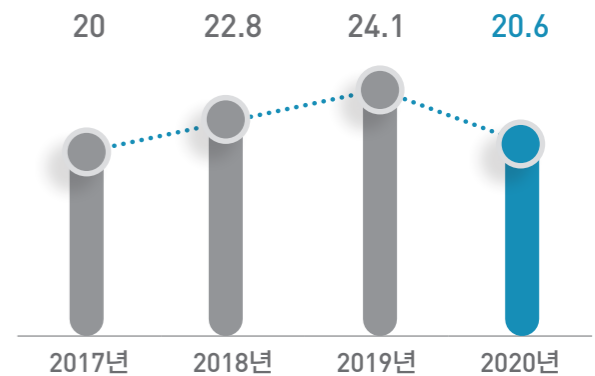


전통시장 고객 수 추이

20.6 억 명

지속적인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고객 수는 20억 명을 지속 상회했습니다.

(단위: 억 명)



디지털 전통시장 입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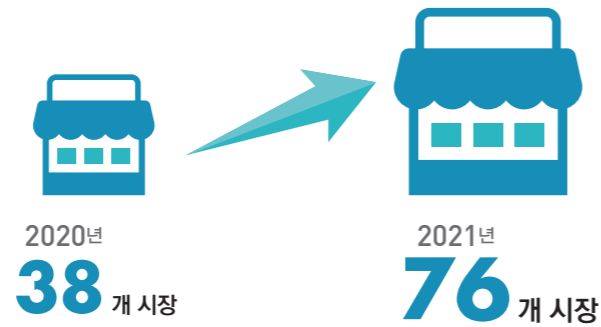
76

 개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을 통해 (2020년) 38개 시장, (2021년) 76개 시장 온라인 플랫폼 입점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여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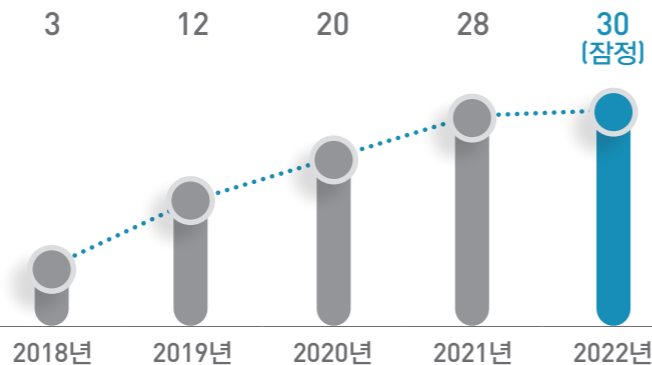
상권르네상스 사업 선정 수

28

 곳

지역상권의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쇠퇴한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색을 반영한 테마구역 설계·운영, 특화상품 개발, 문화·예술 공연 등을 종합 지원했습니다.

(단위: 곳, 누계)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부담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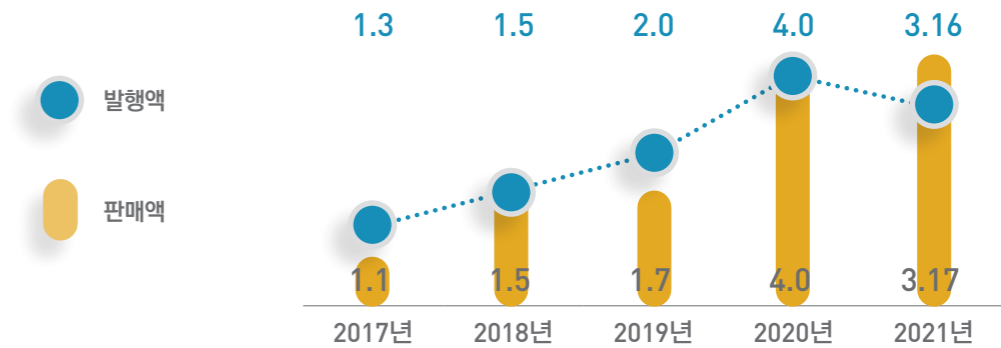
온누리상품권 발행·판매 추이

3.2

 조 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를 통해 전통시장·상점가 매출 증가를 도모했습니다.

(단위: 조 원)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통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4,743

 억 원

18.1만 명 임차인을 대상으로 4,743억 원 임대료 인하, 임차인 1인당 평균 262만 원 인하 (2021.8월 기준 국제청 국제정보 가공)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를 통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대한민국 동행세일 성과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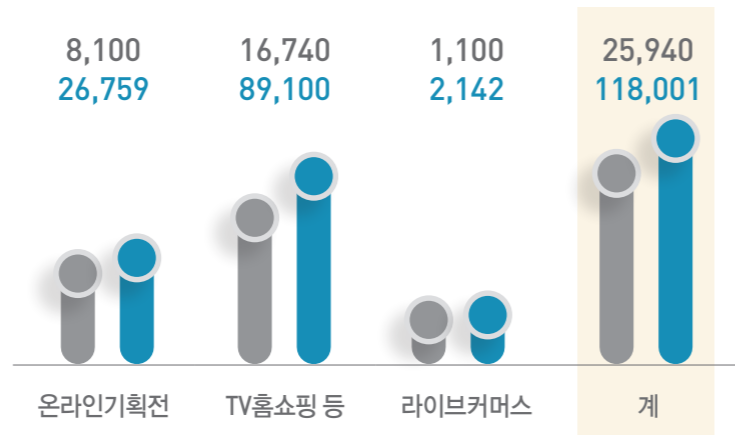
1,180

억 원

2021년 동행세일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기획전, 홈쇼핑 등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추진, 2021년 매출액은 1,1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50% 증가했습니다.

(단위: 백만 원)

- 유통 채널 2020년 매출액
- 유통 채널 2021년 매출액



소상공인 금융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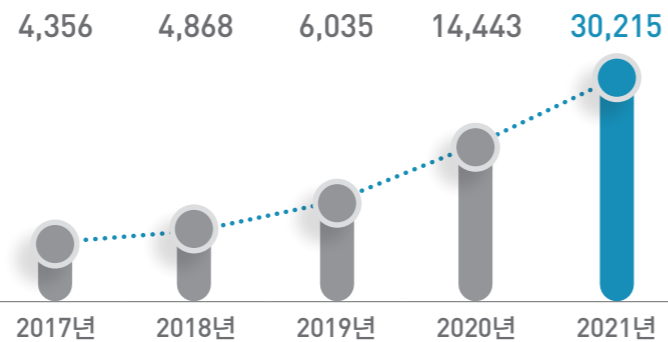
소상공인 저신용자 중심의 직접대출 대폭 확대

3

조 원

시중 자금조달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의 긴급한 금융지원을 위해 직접대출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단위: 억 원)



03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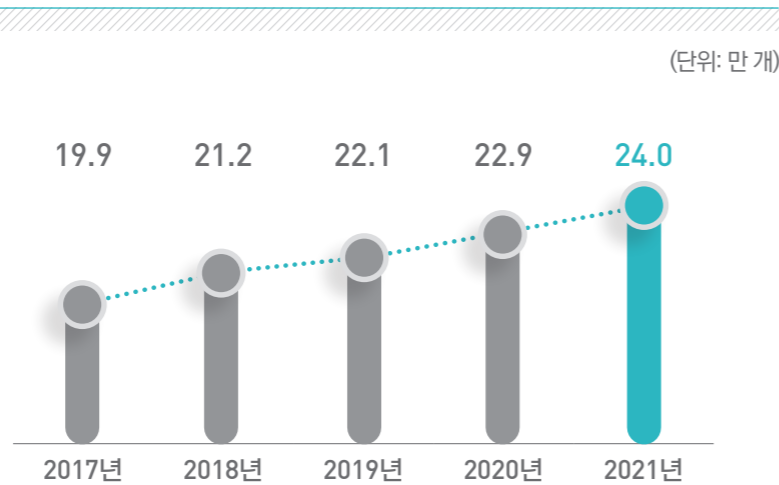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 단계별·유형별 지원을 통해 창업생태계의 양적·질적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매년 신설 법인, 기술창업, 청년창업이 늘고 있고, 대한민국 창업생태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인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간 주도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민관협력 창업지원사업(TIPS)을 대폭 확대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모태펀드 예산을 투입하는 등 제2벤처봄이란 꽃을 피웠습니다.

창업열기 확산

신규 기술창업 증가 추이

24.0 만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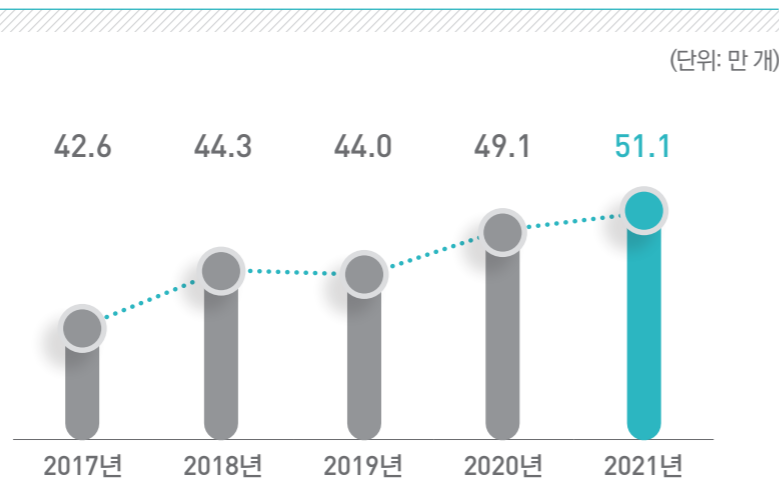
제조·지식서비스업 중심의 기술창업의 증가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됨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신규 청년창업 증가 추이

51.1 만 개

국내 창업생태계가 청년층을 중심으로 창업열기가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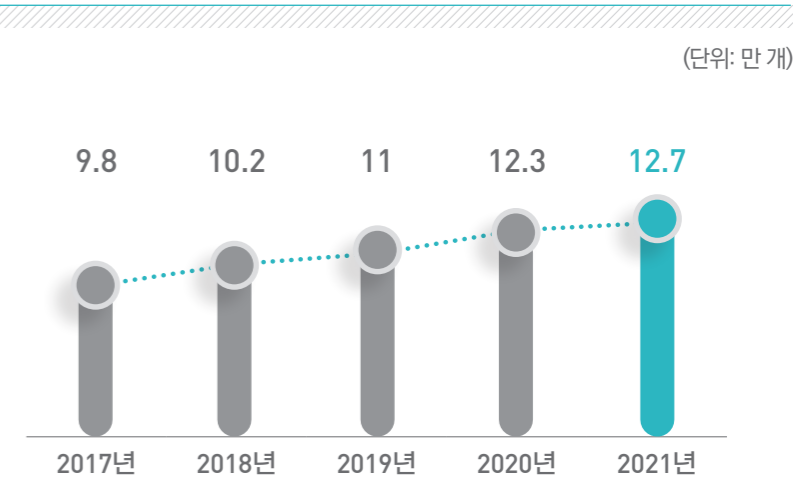


신설법인 증가 추이

12.7 만 개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법인창업은 개인창업 대비 매출액·고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이는 창업으로 기업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위: 만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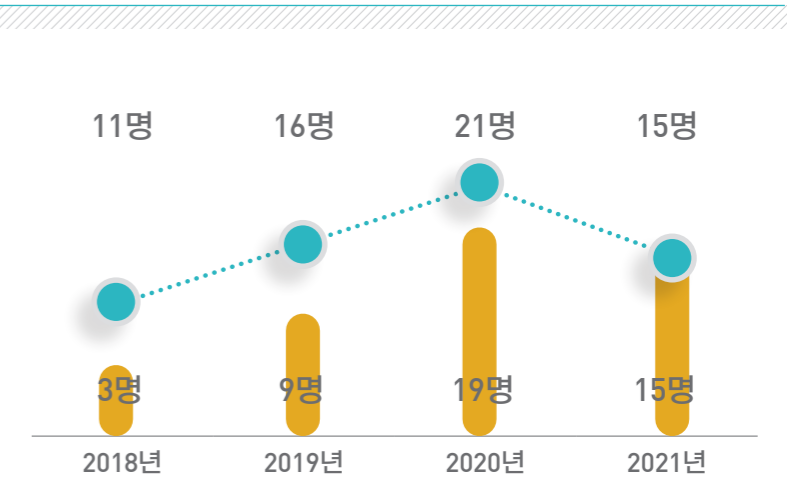


미국 포브스 글로벌 리더 선정 추이

15 명

한국 청년 스타트업들의 우수한 성과가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정책이 청년 스타트업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전체 한국 스타트업 개수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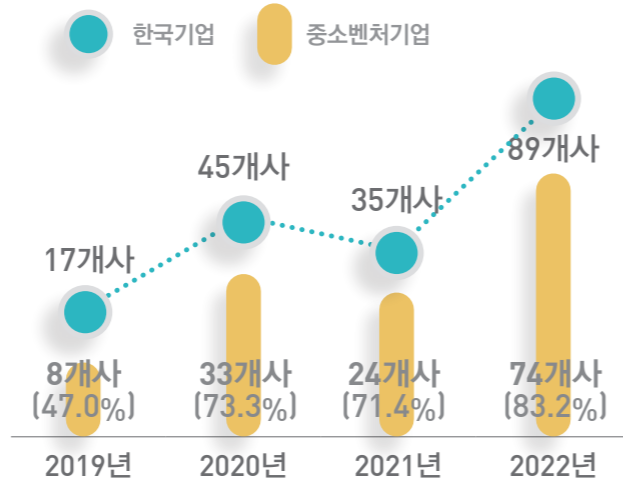
CES 혁신상 수상 중소벤처 기업 수

74 개사

CES 참가 중소기업 중 90% 이상이
팁스(TIPS) 등 중소기업부 지원정책에 참여
(2021년 24개사 중 23개사, 2022년 74개사 중 70개사)

수상 기업이 점차 증가하는 것은
한국 중소기업의 혁신성과 우수성을 전 세계가
인정하며, 한국 중소기업이 세계를 선도할
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 CES 혁신상은 주최측인 CTA가 세계를
선도할 혁신 기술과 제품에 수여하는 상으로
'CES 최고의 영예'로 불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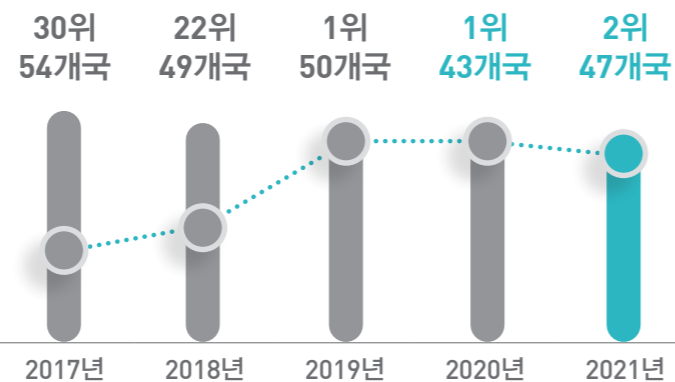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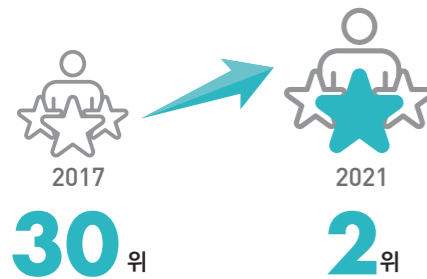


한국 창업생태계 위상

2 위 / **47** 개국

“실패에 대한 두려움” 최저 수준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GEM)

대한민국 창업·벤처기업의 도전정신과
창업생태계의 위상을 알 수 있는 수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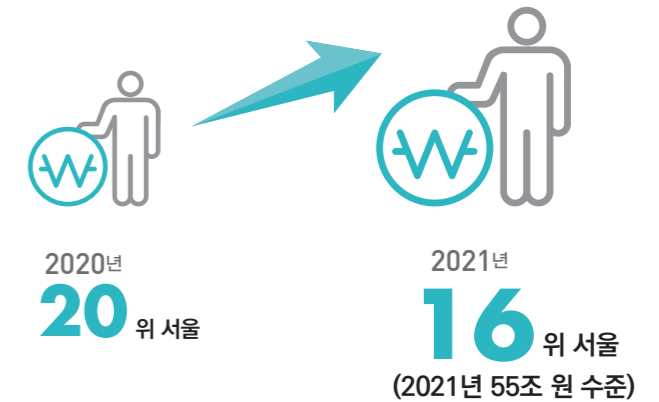


창업생태계 가치 상승 (Startup Genome)

16 위(서울)

2021년 전 세계 280개 도시 중
서울의 창업생태계 가치 16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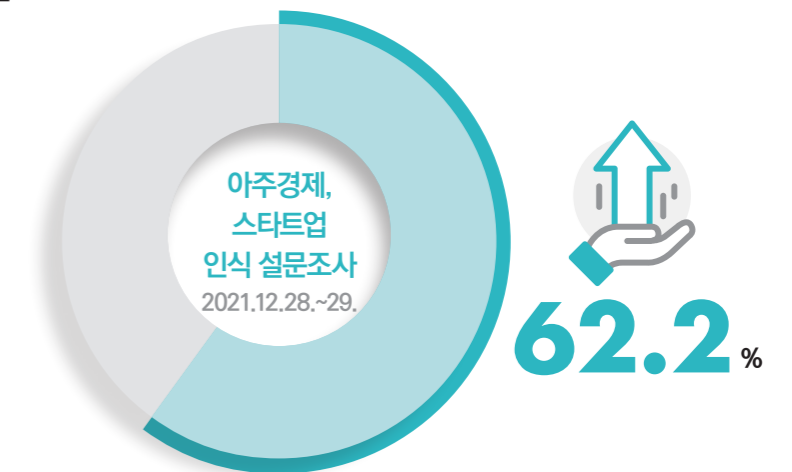
국내 도시의 창업생태계 가치를 다양한
각도(성과, 시장접근성, 인프라, 인재 등)에서
국제적으로 분석한 수치입니다.



스타트업 취업에 대한 인식 양호

62.2 %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인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제2벤처붐 안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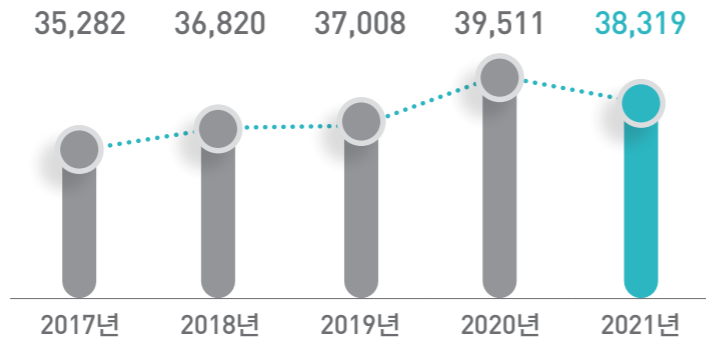
‘벤처다운 벤처기업’ 발굴을 위한
벤처기업 확인제도 변화

38,319

 개사

공공기관 중심에서 민간전문가 중심의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변경되어, 혁신성 및 사업성이 높은
‘벤처다운 벤처기업’ 발굴 체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단위: 개사)



벤처기업 총고용

81.7

 만 명

- 2019년 말 총고용: 4대 그룹(66.8만 명) < 벤처기업(81.0만 명)
- 2020년 말 총고용: 4대 그룹(69.8만 명) < 벤처기업(81.7만 명)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은 2020년 1년간
7천여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습니다.



벤처기업 매출 1천억 원 기업 증가
(벤처이력 & 매출 1천억 원 이상)

633

 개

- 기업 수: 2010년 말 315개 / 2020년 말 633개
- 총매출: 2010년 말 65.1조 원 / 2020년 말 151조 원
- 총수출: 2010년 말 17조 원 / 2020년 말 33조 원

2020년 말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현대자동차 다음으로
재계 3위 수준입니다.

2020년 말 매출 1천억 원 기업 633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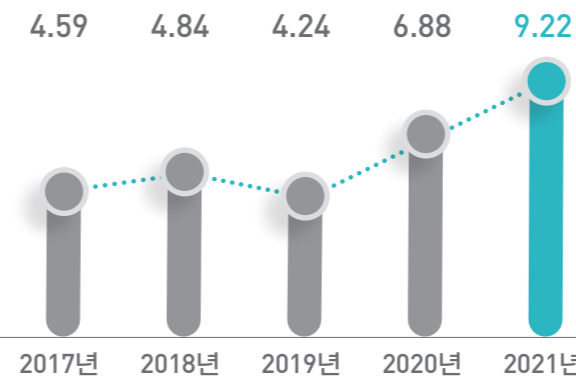
신규 벤처펀드 결성금액

9.2

 조 원

모태펀드 출자금액이 1.6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벤처펀드 결성금액은 불과 4년 만에
2배로 증가한 9.2조 원을 돌파, 벤처투자시장에
풍부한 유동성 공급이 기대됩니다.

(단위: 조 원)



신규 벤처투자 금액

7.7

 조 원

2021년 벤처투자 금액은 불과 4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벤처·스타트업이
코로나19 경제회복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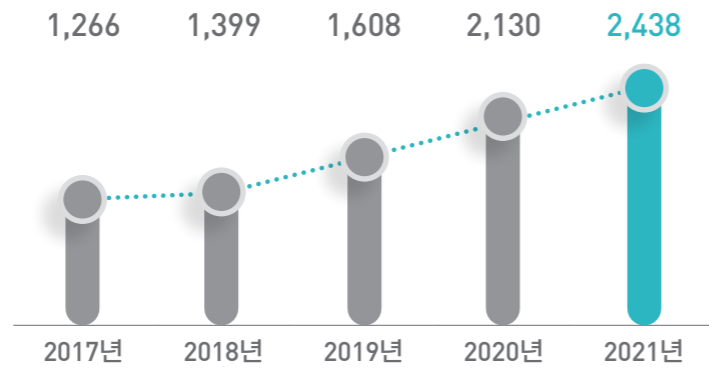


벤처투자 유치기업 수

2,438 개사

2021년 벤처투자 유치기업 수도 전년 실적(2020년)을 경신하며 벤처·스타트업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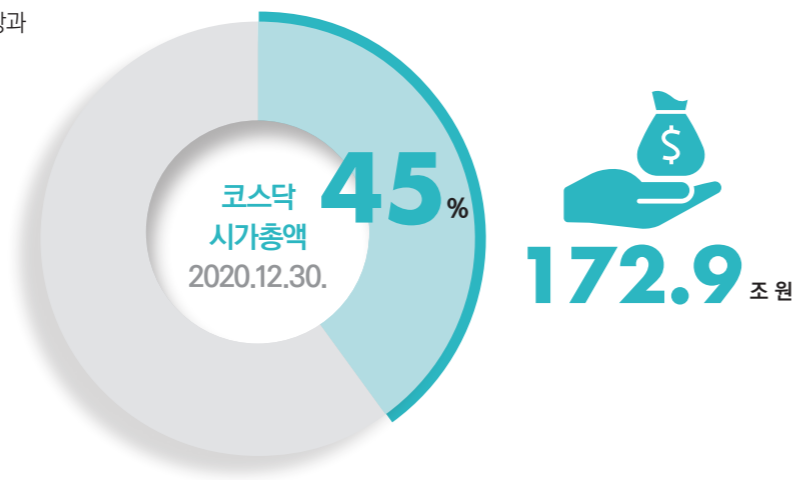


2015~2020년 벤처투자 유치 기업 가치

172.9 조 원

삼성전자(시가총액 483.6조 원)에 이어 코스피 2위, 코스닥 시가총액(385.6조 원, 2020.12.30.)의 약 45% 수준

벤처투자 유치 기업 가치는 코스닥 전체 시총의 약 45%를 차지하며 국내 벤처 생태계의 위상과 미래 성장동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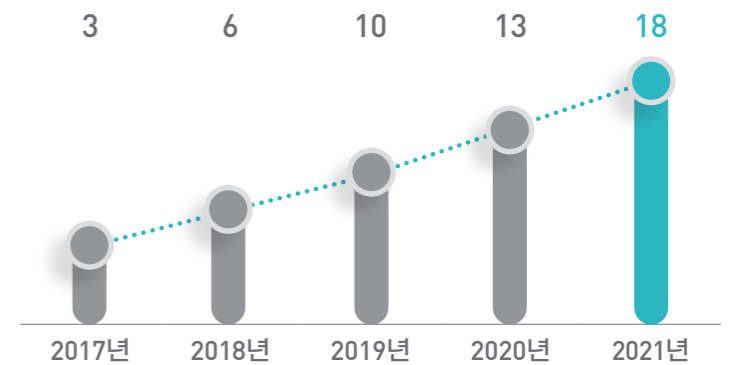


기업가치 1조 원 이상 유니콘기업 추이

18 개사

유니콘기업은 창업·벤처 생태계의 스케일업을 보여주는 지표로, 유니콘기업의 꾸준한 증가는 제2벤처붐이 확산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단위: 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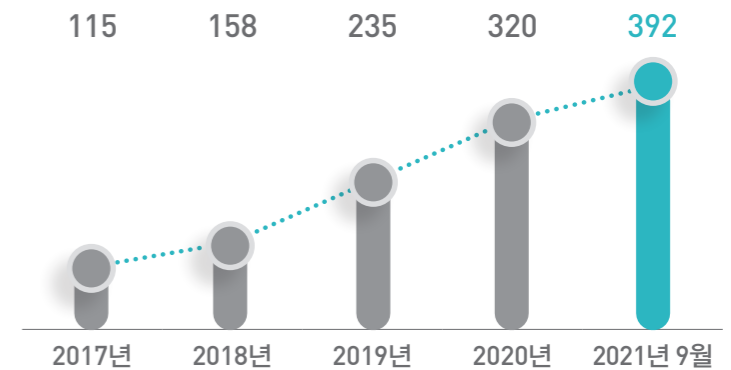


기업가치 1천억 원 이상 예비유니콘기업 추이

392 개사

기업가치 1천억 원 이상 예비유니콘기업의 증가는 K-유니콘 프로젝트의 성과이자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패러다임이 벤처·스타트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위: 개사)



코스피 상위 20위 내 벤처출신 기업 수

4 개사

2021.1.6. 기준 코스피 상위 20위 내 벤처출신 기업 수 4개(2010년까지는 전무)

코스피 상위 20위 내 벤처출신 기업 4개사가 자리매김, 벤처출신 기업이 전무하던 10년 전과 달리 벤처·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의 중심축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위 20위 내 벤처출신 기업 수

13 개사

2001년 6개 → 2021년 13개(코스닥 전체 시가 총액의 11.5%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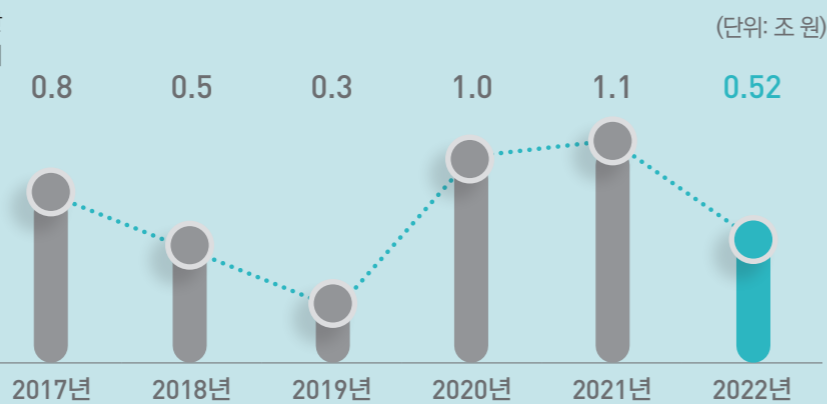
혁신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벤처출신 기업의 시가총액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코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 코스닥 1,000시대의 주역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민간 벤처투자시장 마중물로서의 모태펀드 예산

0.52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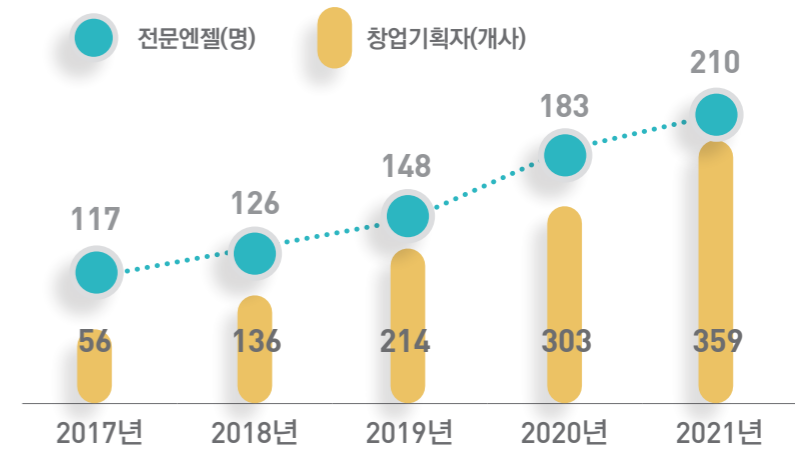
모태펀드 출범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총 예산(2005~, 약 5.1조 원)의 2/3 이상(약 3.6조 원)이 2017년 추경부터 2021년도까지 집중되면서 민간 벤처투자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했고, 그 결과 역대 최대 벤처투자/벤처펀드 결성이라는 제2벤처붐을 이끌어냈습니다.



전문엔젤 및 창업기획자 수

210 명 / **359** 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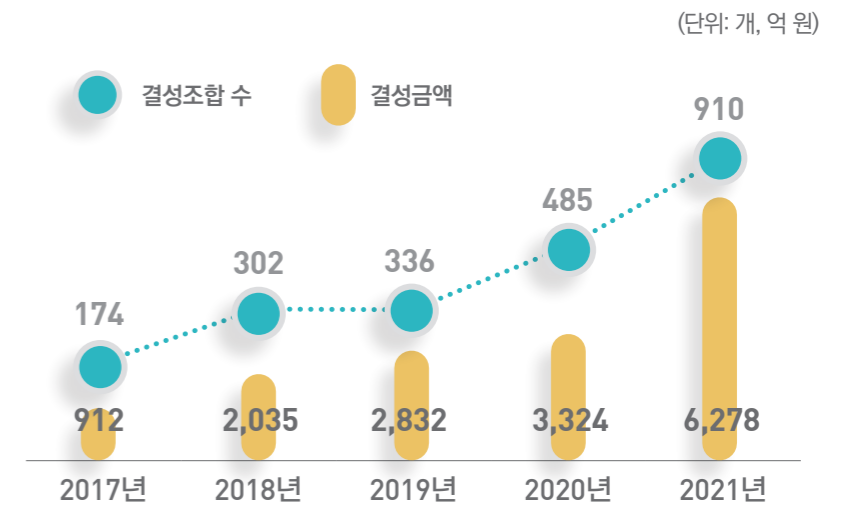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투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창업 초기 벤처투자를 주도하는 전문엔젤과 창업기획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규 개인투자조합 수 및 결성금액

6,278 억 원

2020년 조합 투자유무비율 완화(100→50%) 및 최근 풍부한 자금 유동성으로 전문 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까지 비상장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수요 증가로 조합 결성이 크게 활성화되어 엔젤투자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04

중소기업의 특정한 성장환경 조성

한류 열풍, K-뷰티, K-방역 등의 선전으로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이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며 수출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 버팀목으로서 중소기업의 특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확대와 중소기업 전용 R&D 확대를 통해 기술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내일채움공제와 성과공유제 확산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고치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고치 기록

1,171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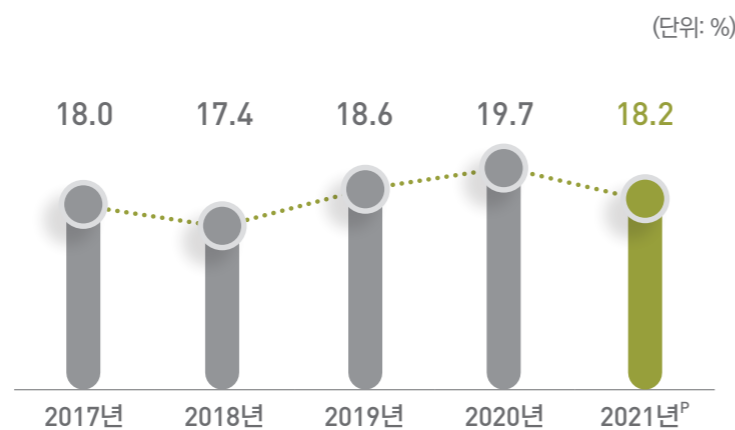
우리 중소기업 수출이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기존 최고치(2018년 1,052억 달러)를
2021.11월에 돌파하고 수출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전체 수출 대비 중소기업 수출 비중

18 %대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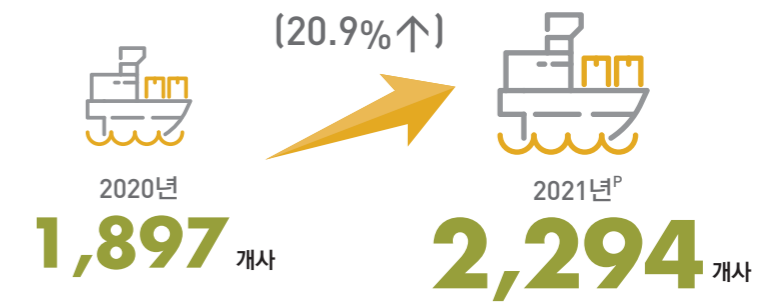
중소기업 수출 비중은 연 18% 내외를 유지,
2018년 저점(17.4%) 이후 2020년(19.7%)까지
상승세를 보였으나 2021년은 대기업의
수출량 증가로 1.5%p 소폭 감소했습니다.



1천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 수

2,294 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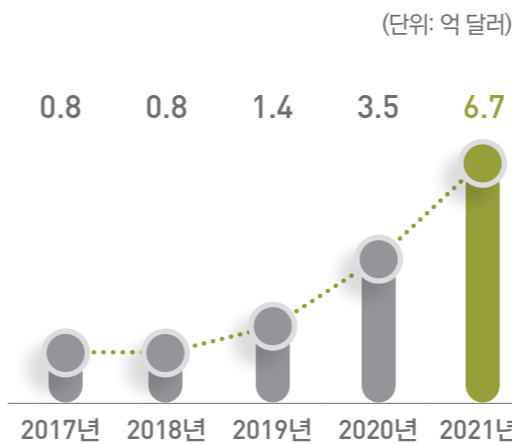
1천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 수가 2021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 글로벌 시장에서의 강소기업
활약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

6.7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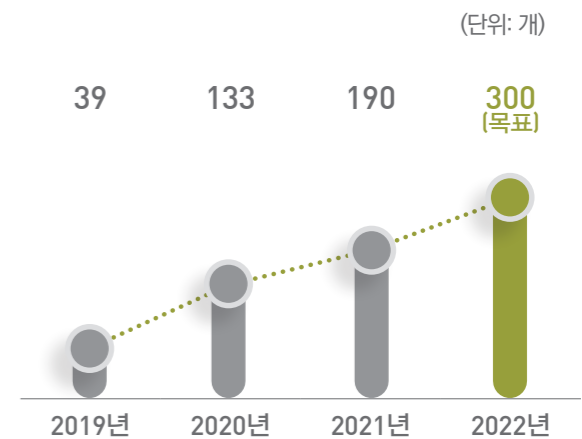
K뷰티(화장품)·K패션(의류)·K팝(음향기기)의
인기에 힘입어 2020년 대비 2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브랜드K 선정 증가 추이

190 개

최근 한류 콘텐츠 성공에 힘입어 국가이미지가
상승함에 따라 국가브랜드 기반으로 출범한
공동 상표인 "브랜드K"를 통해 국가대표
중소기업 소비재 제품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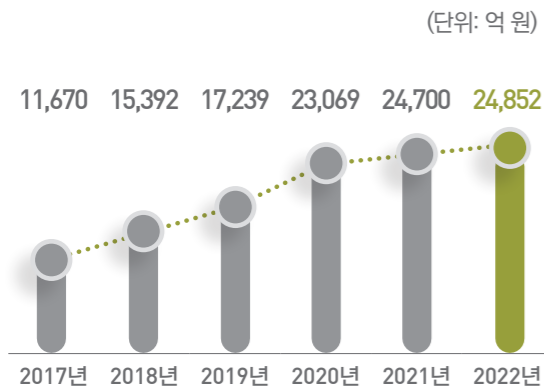


중소기업 R&D 2조 원 시대

중소기업 전용 R&D 증가 추이

2.5 조 원

2017년 대비 중소기업 전용 R&D 2.13배 확대로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지원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R&D 투자 추이

1.8 조 원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 R&D 대폭 확대(1.64배)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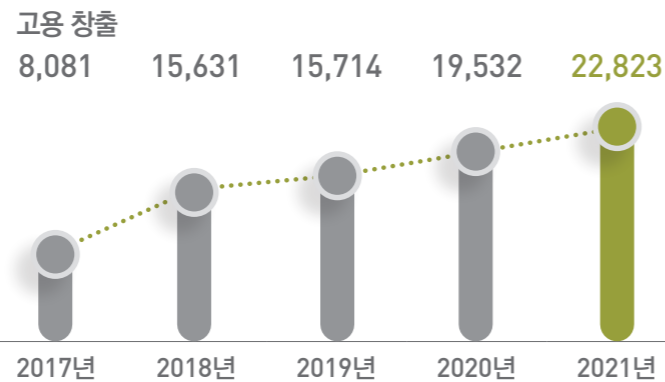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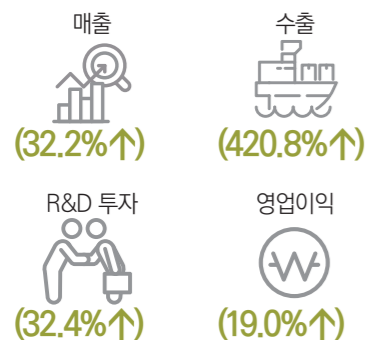


중소기업 R&D 2조 원 시대 주요 성과

매출 **32.2** %↑ 등

정부 R&D 지원이 민간 R&D 투자 등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했습니다.

2015~2019년 주요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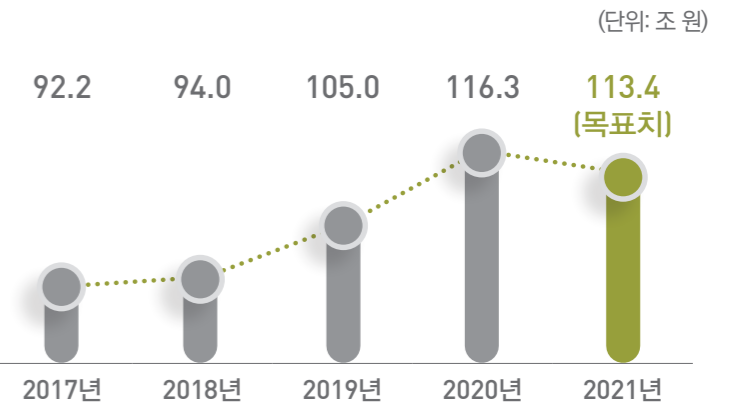
(단위: 명)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액 증가 추이

116.3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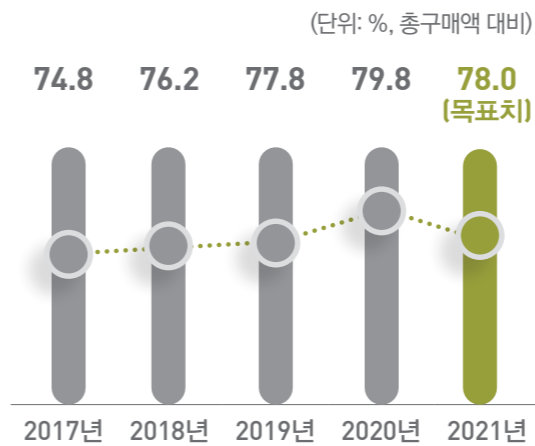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초기 판로 개척에 애로를 겪는 제조 중소기업에 생산·납품 기회를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비율 증가 추이

79.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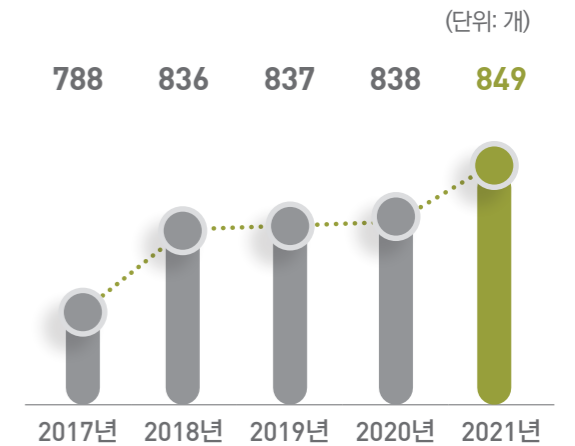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비중이 매년 증가하여 2020년 기준 79.8%를 차지하며, 이는 법정구매비율(50%)을 상회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기제품 구매목표 비율(50%) 적용 공공기관 수

849 개

공공구매 구매계획·실적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대상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안정적 판로를 지원하고 경영 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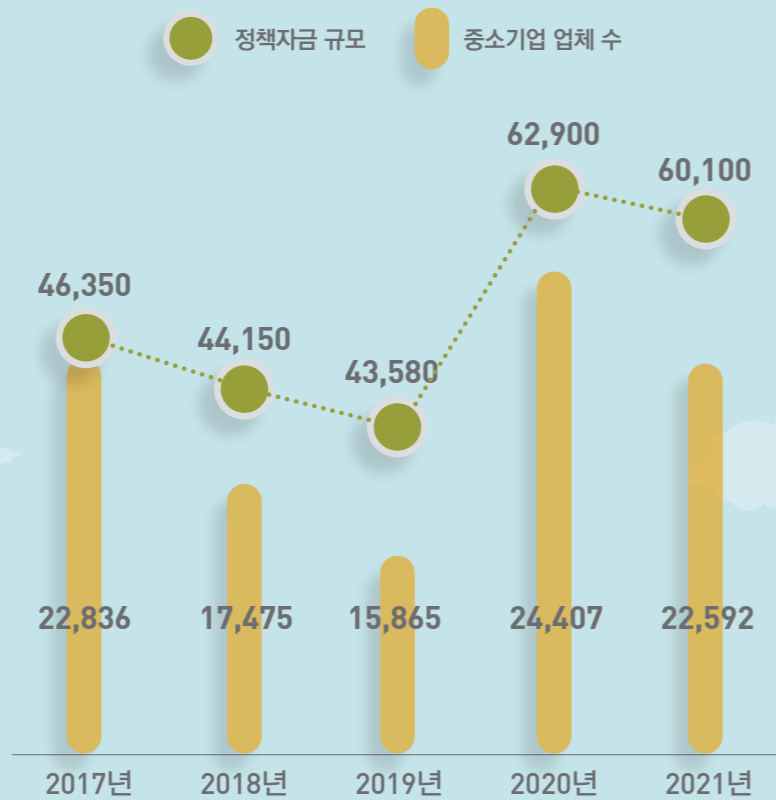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실적

6 조 원

코로나19,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영위기 및 재도약 기업을 위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 촉진에 기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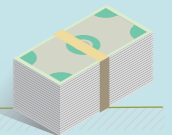
(단위: 억 원, 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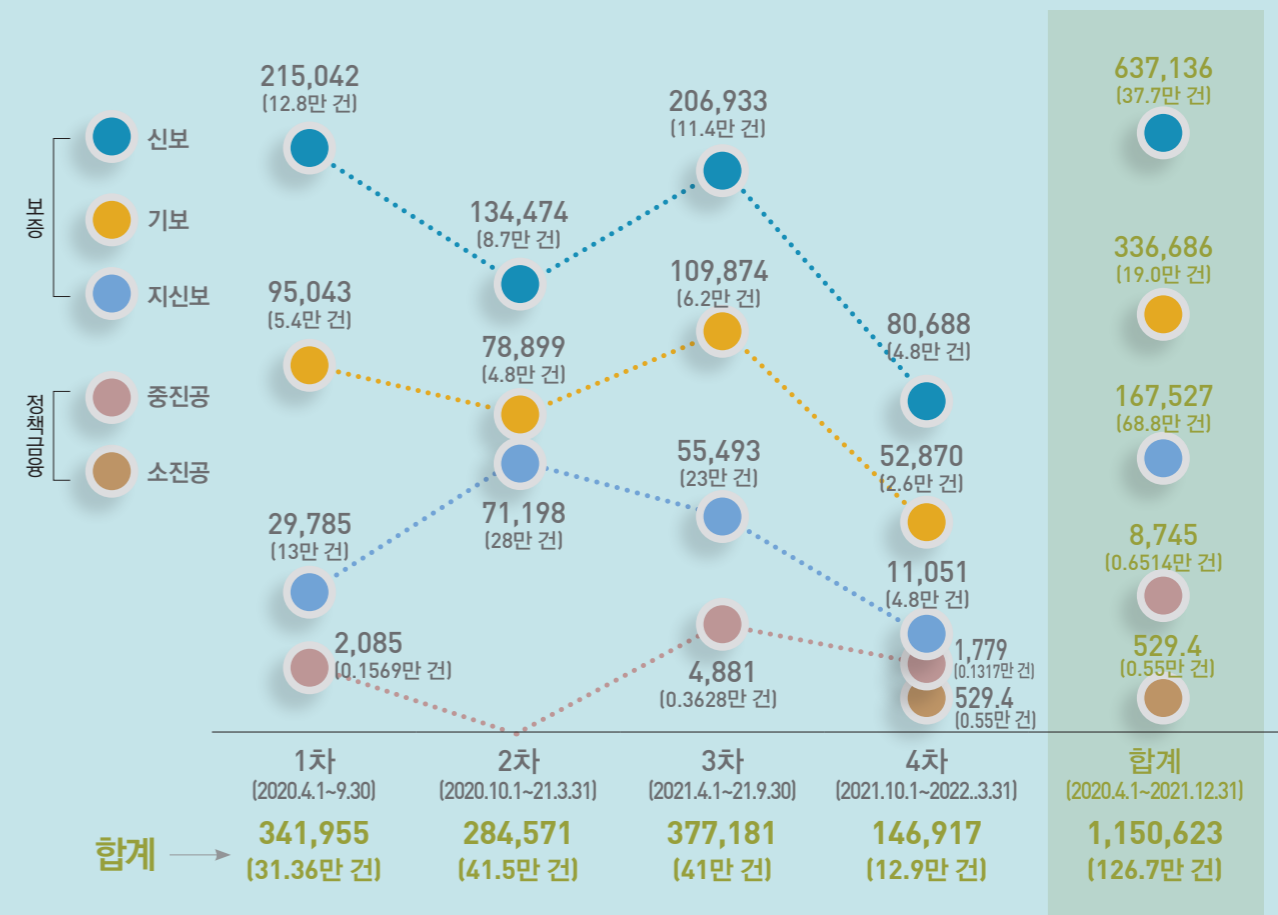
중소기업 정책금융 만기연장

115 조 원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115조 원 규모의 만기연장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유동성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단위: 억 원)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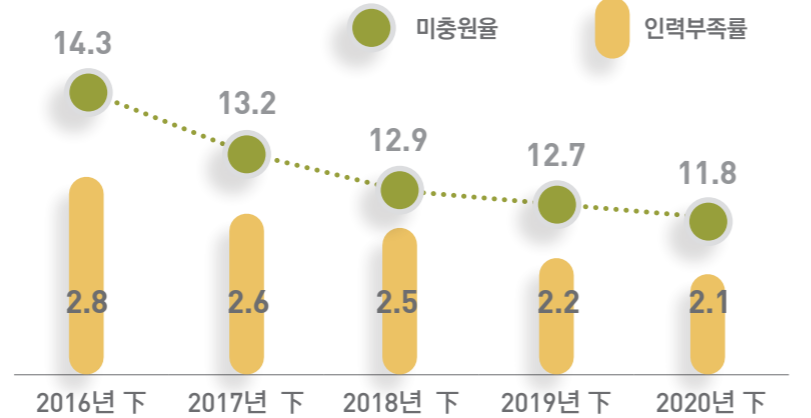
중소기업(300인 미만)
미충원율 및 인력부족률 추이

11.8% / 2.1%

· 미충원율 = [(구인인원-채용인원)/구인인원] × 100
· 인력부족률 = [부족인원/(부족인원+현원)] × 100

중소기업 미충원율 및 인력부족률이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며, 중소기업 인력실태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 출처: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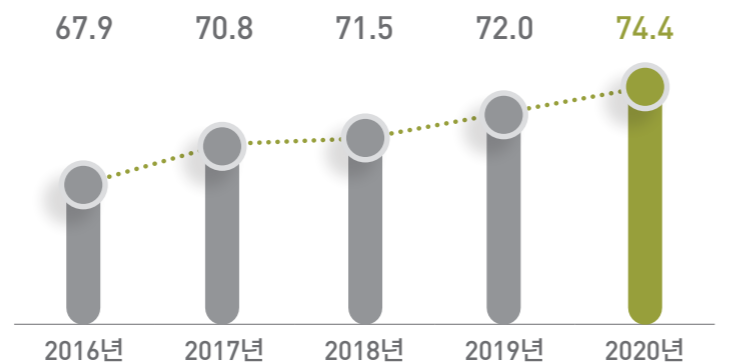
(단위: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비중

74.4%

중소기업의 임금 비중 증가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출처: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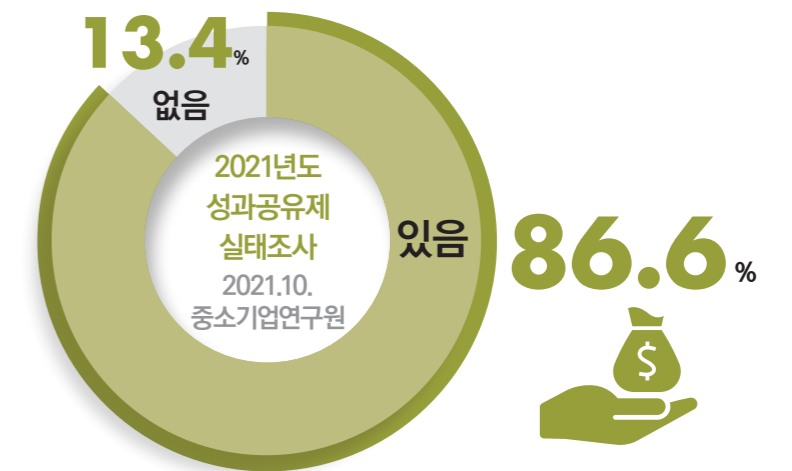


(단위: %)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지속 운영 의향

86.6%

임금상승, 성과급 지급 등 기업의 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성과공유제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우수인력이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하여 기업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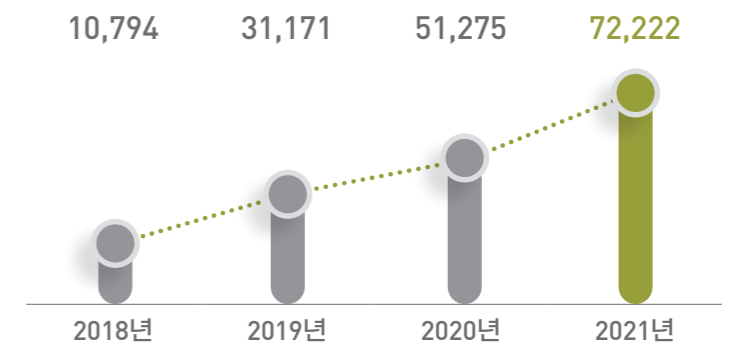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수

72,222 개사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인재육성을 위해 기업의 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사람 투자 문화를 중소기업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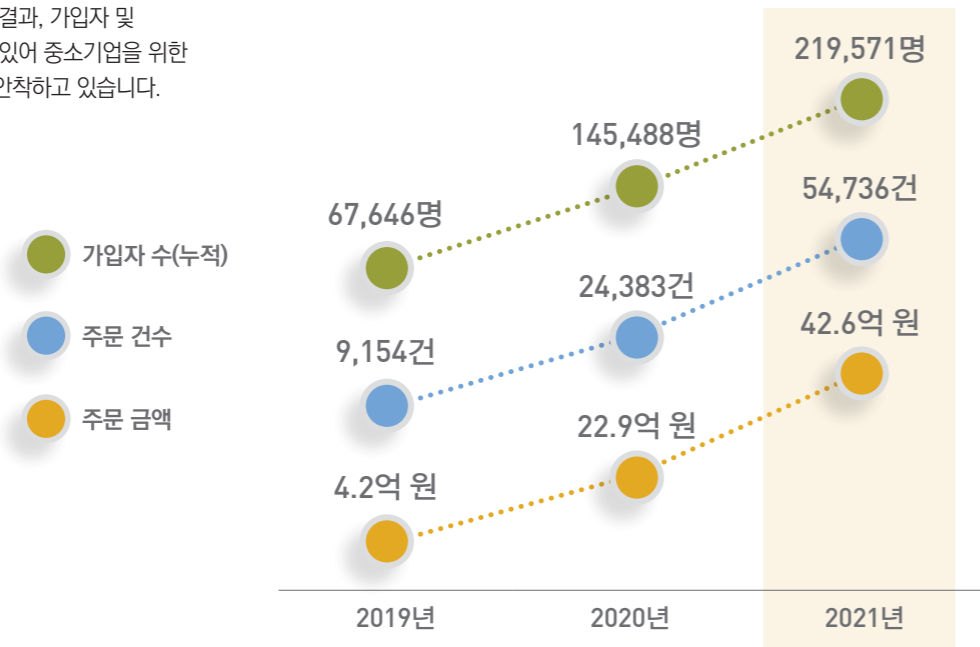
(단위: 개사, 누적)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가입자 수

219,571 명

출범(2019.9.)이후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서비스 고도화 등을 추진한 결과, 가입자 및 이용 증가 등이 활성화되고 있어 중소기업을 위한 복지제도의 대표 브랜드로 안착하고 있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근속기간 증가

23.9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후 청년근로자의 근속기간이 미가입자 대비 23.9% 증가하고, 장기재직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균 근속기간



1인당 매출액





05

중소기업 디지털화 및 지역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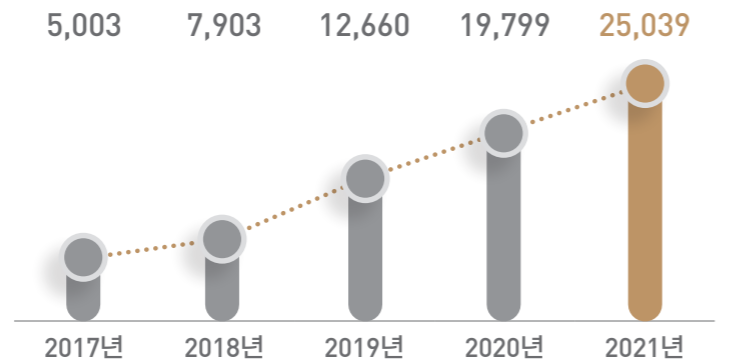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까지 약 2.5만 개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해 생산성 향상과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AI·데이터 기반의 제조 혁신 고도화를 위해 AI 제조 플랫폼(KAMP)을 구축하는 등 제조데이터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총 6차례 29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144개의 규제특례를 허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역혁신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스마트공장 지속 보급·확산

2.5 만 개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 개 보급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위: 개, 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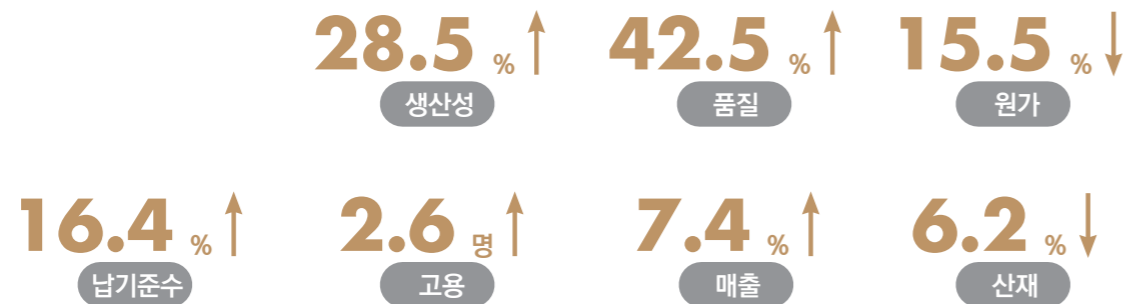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 주요 성과

28.5 % 상승(생산성)

2020년 12월 산업연구원, 2014~2018년 도입기업 7,903개사 대상

스마트공장 도입 이후, 생산성·품질·원가·납기 등의 공정 개선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와 더불어 고용·매출·산재 등의 경영상의 개선 효과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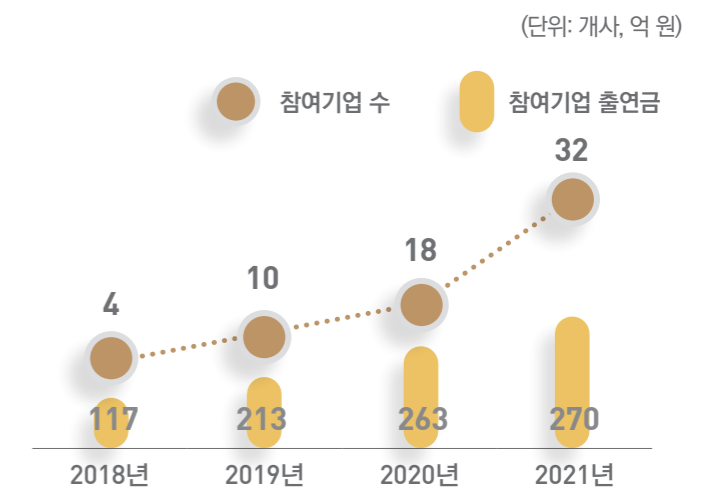
(단위: %, 명)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참여기업 증가 추이

32 개사

스마트공장 구축 및 상생협력에 대한 민간의 관심을 적극 제고하여, 참여 기업 수 및 출연금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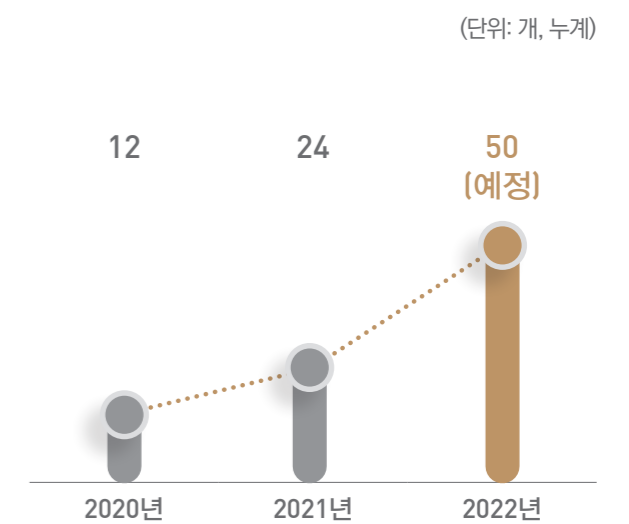


(단위: 개사, 억 원)

중소기업 제조데이터 기반 AI 데이터셋 구축 수

24 개

분야별 인공지능 데이터셋을 구축하여 KAMP를 통해 무료로 개방함에 따라, 중소기업이 보다 손쉽게 제조데이터를 활용·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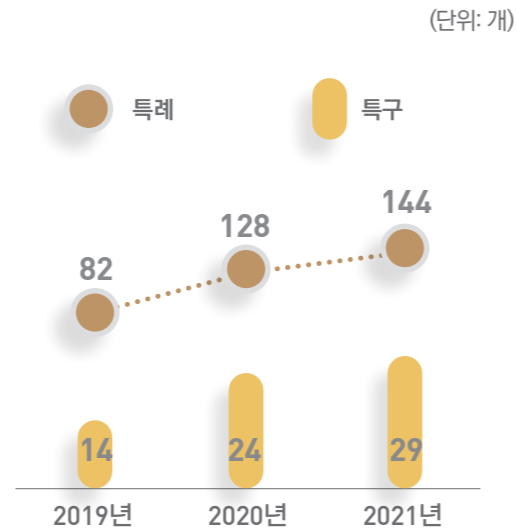
(단위: 개, 누계)

규제자유특구 안착화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규제특례 수

29 개 / **144**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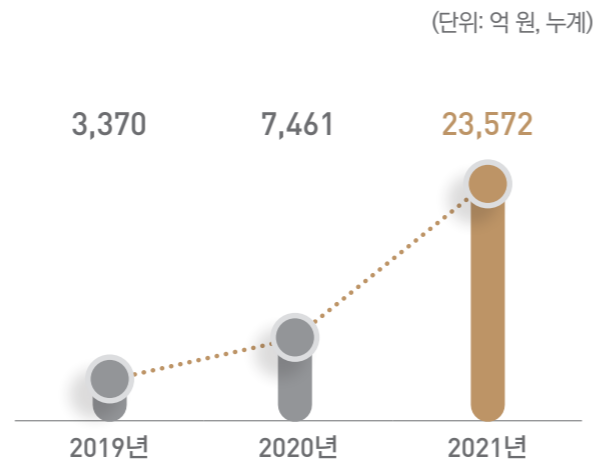
규제자유특구가 지역 균형 뉴딜을 실현하는 선도기지 역할을 담당하며 지역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투자유치 금액

23,572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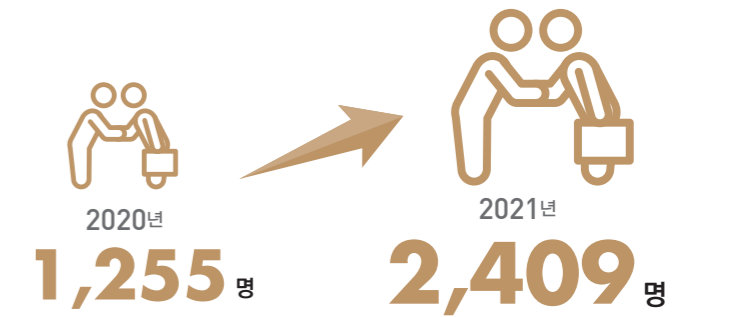
비수도권 지역에 규제를 풀어 지역 혁신산업 성장을 촉진한 규제자유특구가 출범 2년 8개월 만에 투자유치액 2조 3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일자리 창출

2,409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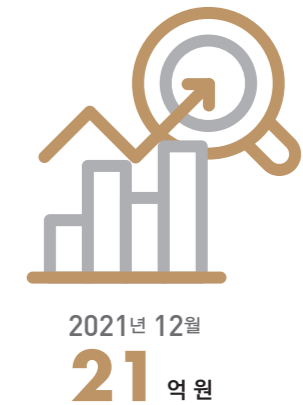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에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임시허가 사업의 매출 개시

21 억 원

1차, 2차 특구로 지정되어 2년간의 실증을 마치고 (1차 특구 2021.8월, 2차 특구 2021.11월) 임시허가를 받은 10개 사업에서 약 21억 원 규모의 실증제품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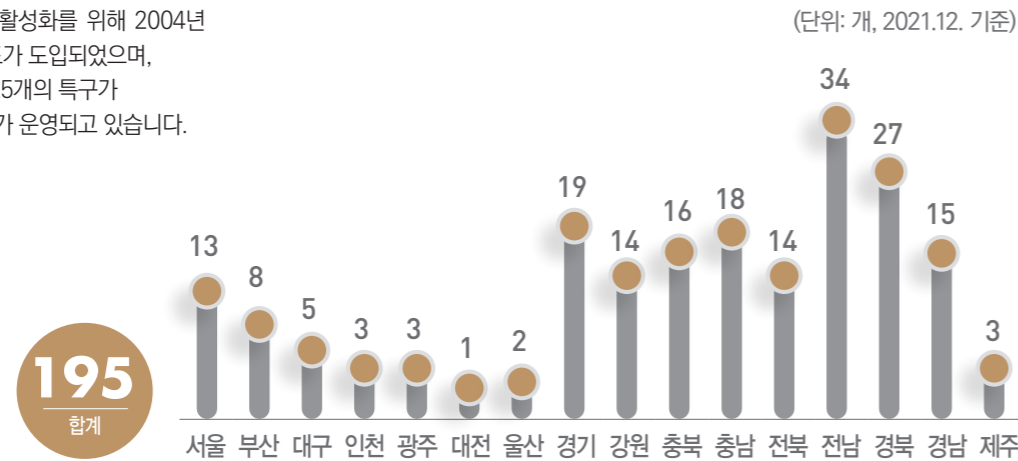


지역 중소기업 육성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 현황

195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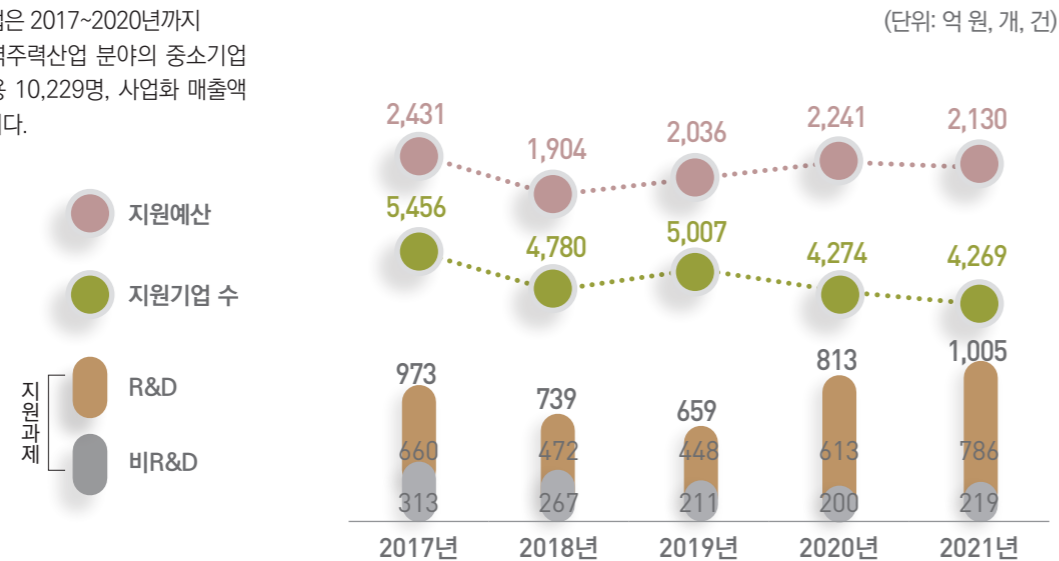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4년부터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가 도입되었으며, 4년 동안(2017~2021년) 25개의 특구가 지정되어 현재 195개 특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 신규 고용

10,229 명

지역주력산업육성 사업은 2017~2020년까지 4년간 19,517개 지역주력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신규 고용 10,229명, 사업화 매출액 1.3조 원을 창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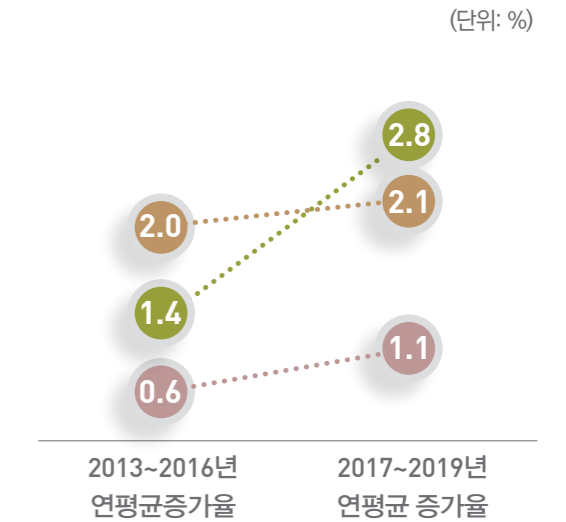
지역주력산업 육성 주요 성과

2.8 % (중사자 수 증가율)

2013~2019년까지 지역주력산업육성 성과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2017~2019년)에서 비수도권 14개 시·도 주력산업 분야의 사업체 수, 고용, 매출 연평균 증가율이 모두 높았습니다.

※ 2013~2019년,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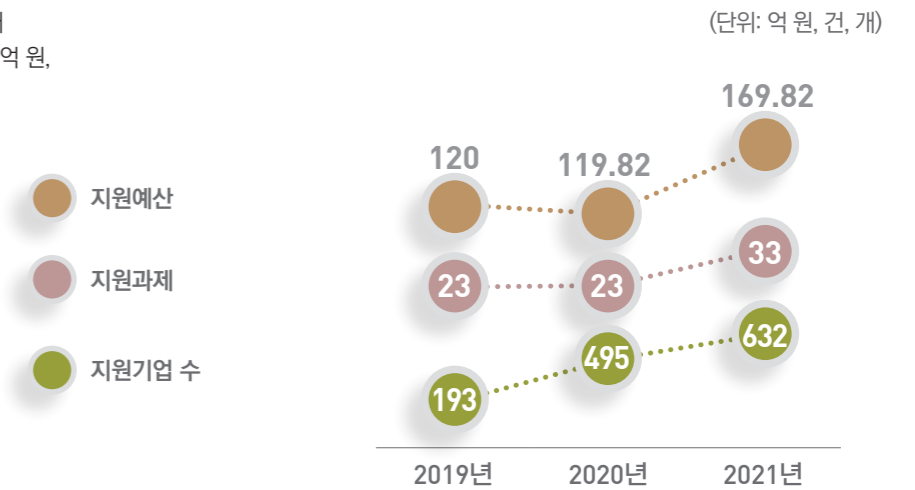
- 지역주력산업 중소기업 수
- 지역주력산업 종사자 수
- 지역주력산업 매출액



지역연고산업 육성 매출 성과

645 억 원

지역연고사업은 2019~2020년까지 688개 기업을 지원하여 매출 645억 원, 수출 194억 원, 신규 고용 444명의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06

연대와 협력을 통한 상생경제 확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 조성을 위해 2019년부터 자살한 기업을 발굴해 총 35개사와 협약을 체결해 약 123조 원 규모의 지원을 하고 있고, K-방역의 선봉에 선 상생형 스마트공장과 일본의 수출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소부장 상생 모델 등 새로운 상생 모델을 도입하여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상생기금 출연이 크게 증가했고, 상생결제액도 4년 연속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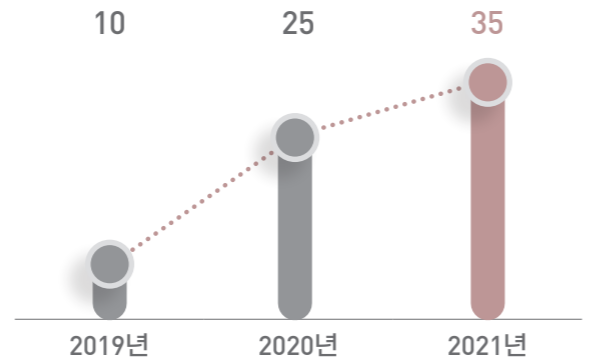
상생협력의 지평 확대

자상한기업 협약 체결

35 개 / 123 조 원

2021년 말 기준 금융지원 99조 원, 판로확대 19조 원, 투자 4조 원 등 총 123조 원 규모의 민간협력 추진

협력사 위주의 상생에서 비협력사, 소상공인까지 자발적인 상생으로 영역을 확대하였으며, 한국판 뉴딜, ESG, 코로나19 등 시의성 있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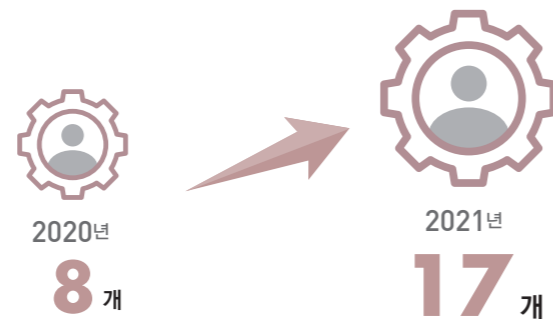
(단위: 개, 누계)

소재·부품·장비 상생모델 확산

17 개 모델

2021년 누적 17개 모델을 발굴·승인(대기업 26개, 중소기업 21개 참여), 정부·대기업·중소기업이 R&D 등 협업하여 향후 5년간 매출 4,669억 원, 고용 482명 등 예상

기존에는 대기업이 외국기업 등을 선호했으나, 이제 국내 중소기업을 먼저 찾는 등 소부장 밸류체인 신규 진입 문턱이 낮아졌다고 현장에서 호평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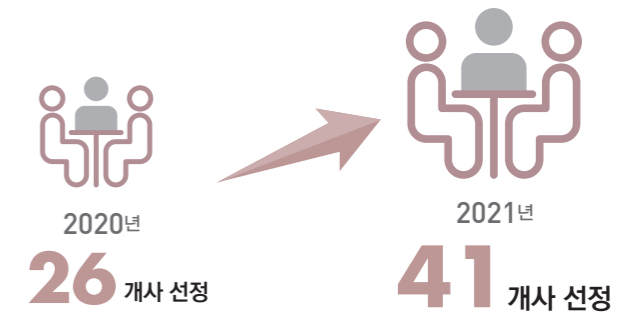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활용한 협업 기업 수

41 개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협업에 의한 M&A, 신상품·서비스 출시 등 가시적 성과와 신사업·신시장 창출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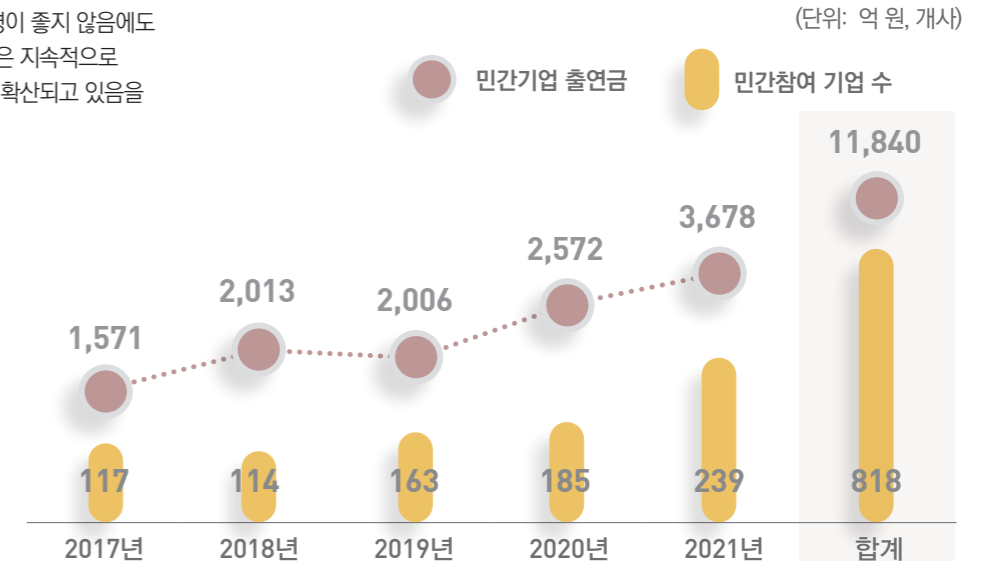
- 2020년 대기업 등 수요기업 17개사, 스타트업 320개사 참여 → 우수팀 26개사 선정
- 2021년 대기업 등 수요기업 36개사, 스타트업 410개사 참여 → 우수팀 41개사 선정



상생협력기금 출연 증가 추이

11,840 억 원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의 경영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상생협력기금 출연액과 출연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민간분야의 상생활동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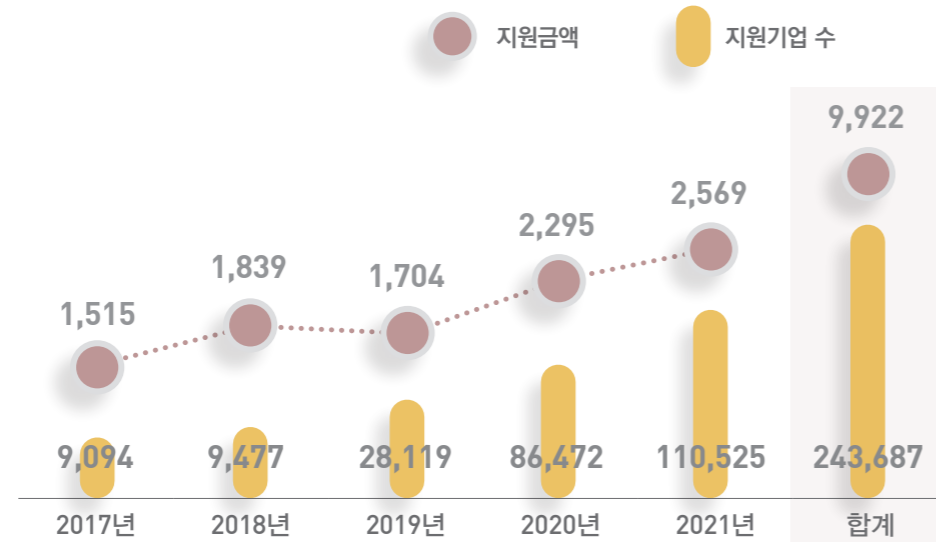


상생협력기금 지원 증가 추이

243,687 개사

기금 출연액의 증가에 따라, 기금을 통해 지원받는 수혜 중소기업도 증가했습니다.

(단위: 억 원, 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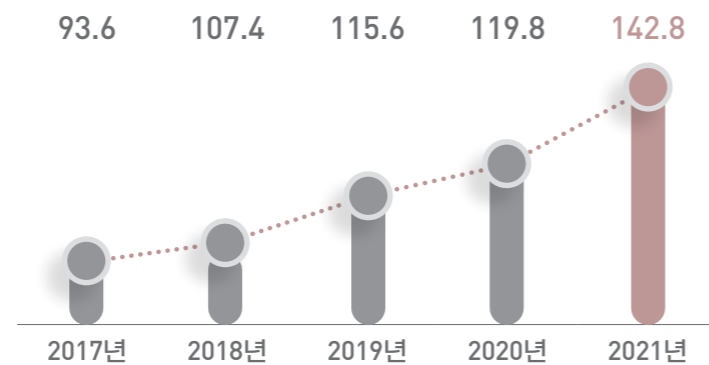


상생결제액 연도별 실적

142.8 조 원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상생결제를 활용한 납품대금 지급이 증가하여 직접거래관계가 있는 기업뿐 아니라 그 하위 협력기업도 납품대금 수취환경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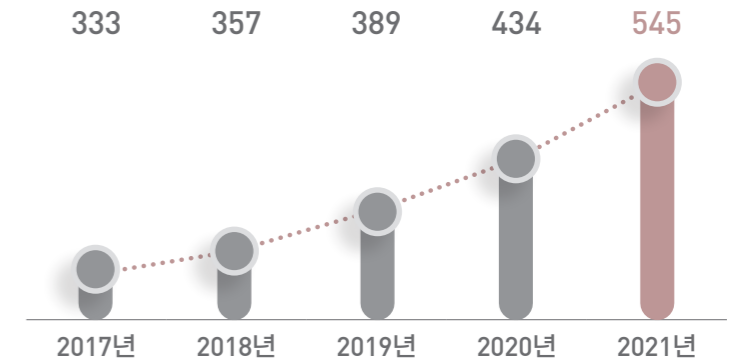


상생결제 누적 구매기업 수

545 개사

2021년부터 기존의 대기업과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지방 공기업까지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 상생결제 구매기업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단위: 개사, 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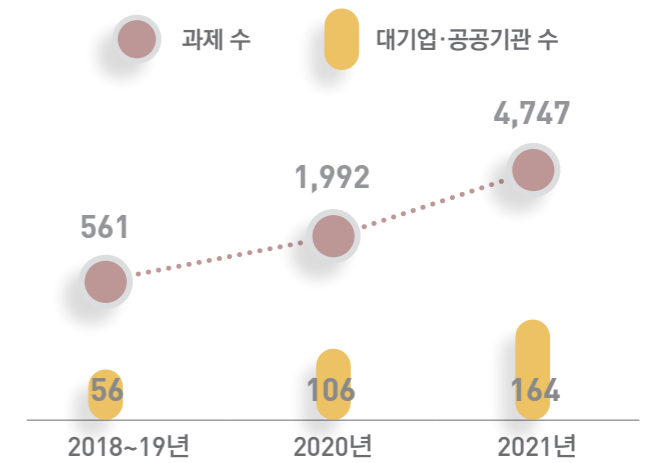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기업 증가 추이

164 개사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과 상생협력으로 발생한 협력이익을 공유하는 대기업, 공공기관의 수가 164개사로 증가하고 수행한 과제 수도 4,747개로 증가했다.

(단위: 개, 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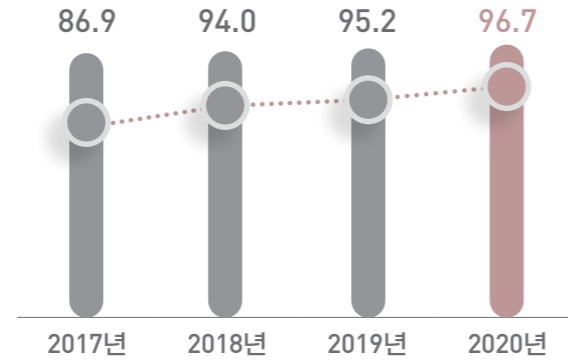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중소기업 체감 거래관행 개선도 상승 추이

96.7 %

전년도 대비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3년 연속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실태조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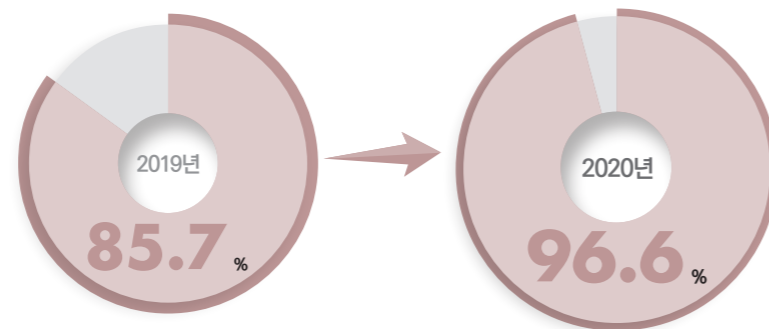
납품대금 제값받기 현황

96.6 %

- 납품대금조정협의회 활용기업의 85.7%(54/63개사)가 납품대금 인상 합의 도달(2019년)
- 납품대금조정협의회 활용기업의 96.6%(144/149개사)가 납품대금 인상 합의 도달(2020년)

2019년 대비 2020년 납품대금 조정협의 건수 및 합의 건수 모두 증가하여 납품대금조정협의회가 안정적인 활성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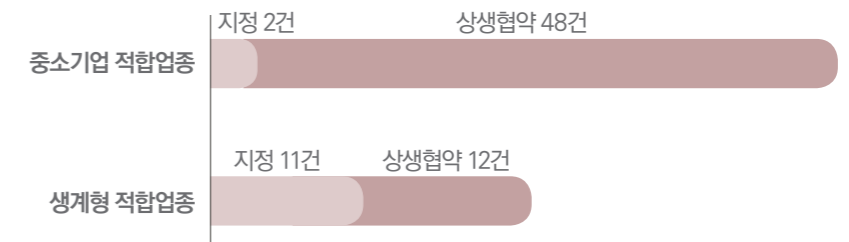
중소기업·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 상생협약 실적

73 건(합계)

적합업종 지정 및 자율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상생협약 체결로 관련 업계 약 60만 개의 중소·소상공인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단위: 건)

※ 2017년~2021년 12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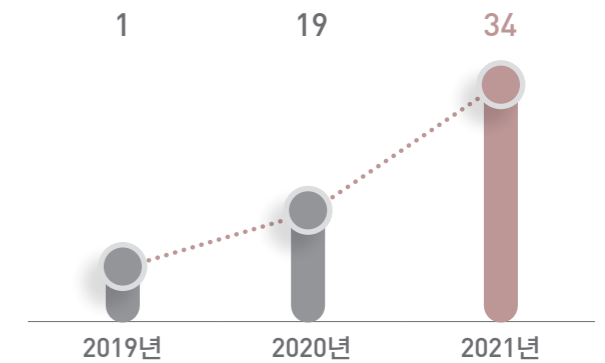


상생조정위원회 조정 성립 누적 건수

34 건

각 부처에 접수된 중소기업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들에 대해서 조정·중재안을 도출하여 기업들 간 자율적 합의를 유도, 신속한 피해 구제를 지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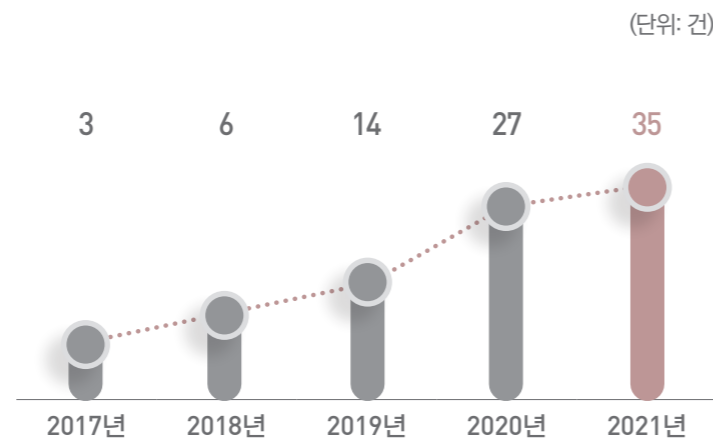
(단위: 건, 누적)



의무고발요청 증가 추이

35 건(누적)

거래 공정화 법률을 위반한 기업들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여 지속적인 법 위반 방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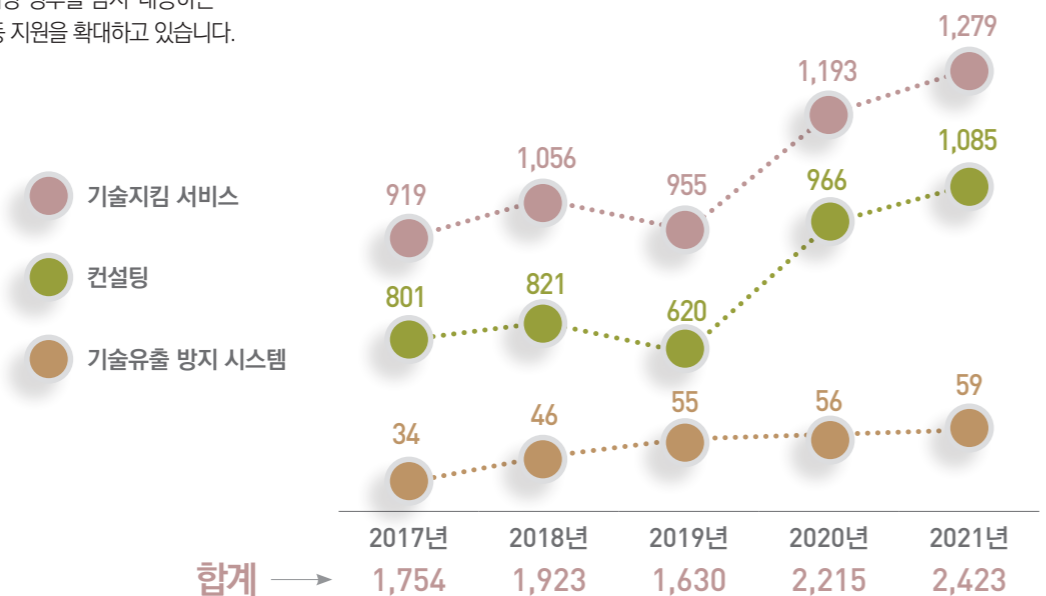


(단위: 건)

기술보호 역량강화 지원 실적

9,945 건(누적)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진단하고, 사이버해킹, 기술유출 이상 징후를 탐지·대응하는 SW 제공 및 HW 구축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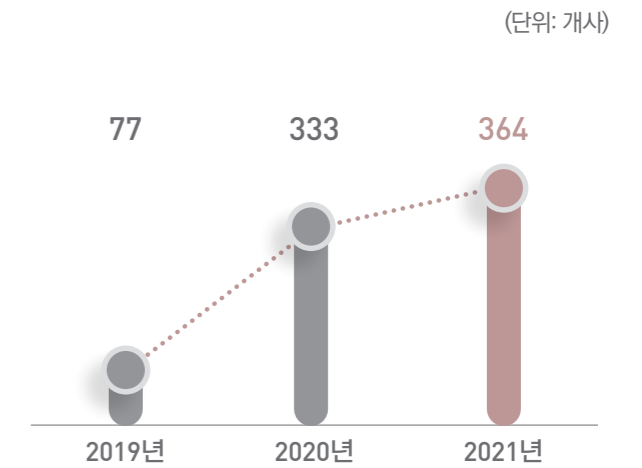


(단위: 건)

중소기업기술분쟁 컨설팅 지원 실적

364 개사

지방중기청에 기술보호지원반을 편성하여 상담, 자문 등을 지원하고 법무지원단을 통해 1:1 심층 법률자문 및 조정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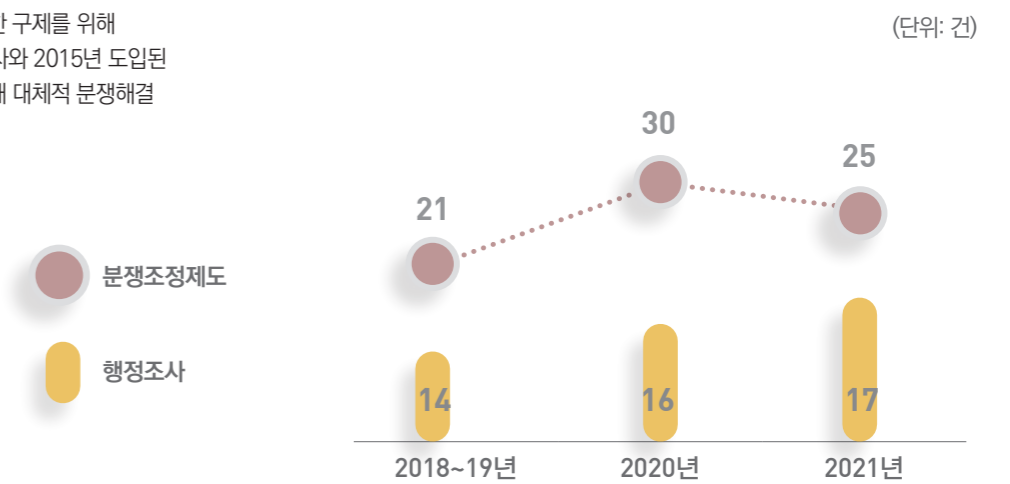


(단위: 개사)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행정조사 및 분쟁조정제도 지원 실적

행정조사 **47** 건 / 분쟁조정제도 **76** 건(누적)

중소기업기술 침해사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2018년 12월에 도입된 행정조사와 2015년 도입된 분쟁조정제도는 상호연계를 통해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단위: 건)

기술임치 실적

53,836 건(누적)

기술분쟁 발생 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사실 입증을 위한 기술임치제도를 지속 추진 중입니다.

(단위: 건)



실태조사를 통한 상생협력법 위반 행위 자진 개선 실적

740 개사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처분하기보다는 현장에서 자진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기업 간 공정한 수탁·위탁 거래환경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단위: 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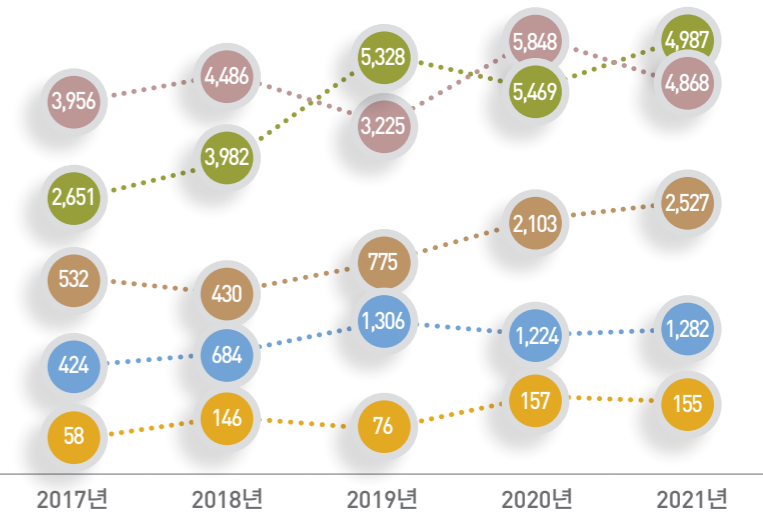
규제 개선

중소기업 옴부즈만 운영 실적

22,417 건(규제애로 처리)

총 592회 현장소통을 통해 22,417건의 규제애로를 처리하여 그 중 6,367건(지난정부 대비 월평균 실적: 기업소통 52% ↑, 규제처리 107% ↑, 제도 개선 189% ↑)의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 발굴(건)
- 처리(건)
- 개선(건)
- 참여(명)
- 소통(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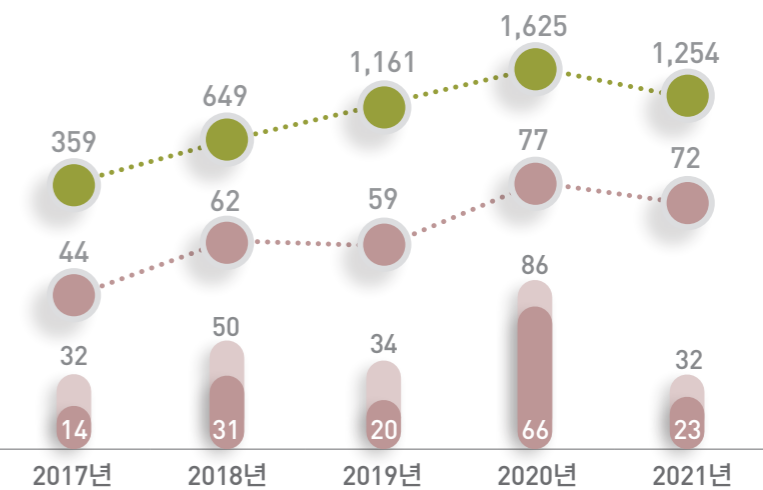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운영 실적

1,254 건(규제검토)

법령 제·개정 시 신설·강화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규제유예·면제 등 대안을 제시하고 반영했습니다.

(단위: 건, %)

- 검토(건)
- 반영(%)
- 의견제출(건)
- 반영(건)



국민과 함께한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5주년 통계자료집

발 행 일 2022년 2월

발 행 처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집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편집디자인·인쇄 제작 (주)현대아트컴

* 본 통계자료집 내용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